대한민국 유일의 중소기업 CEO를 위한 경제·경영 전문지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2017. Aug / Vol.150

14 Business Up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중소기업의 미래 생존 전략

42 IBKeri Industry Report
블록체인의 이해

IBK기업은행 창립 56주년 특집 기획

❶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특별 인터뷰
동반자금융, 3-up을 향해

❷ IBK기업은행과 함께한 중소기업 CEO 6人의 현장 스토리
중소기업의 작은 힘이 모여 한국경제의 큰 힘을 키운다







CEO Story

(주)오복식품 채경석 대표이사

기업의 깊은 맛은 '신뢰'에서 우러난다

65년째 장류 산업의 외길을 걸어온 (주)오복식품.



IBK 경제연구소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ontents

2017 August + Vol.150

01 시론 | 공유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

02 Issue | 이달의 경제 키워드 10

IBK기업은행 창립 56주년 특집 기획

04 ❶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특별 인터뷰
동반자금융, 3-up을 향해

08 ❷ IBK기업은행과 함께한 중소기업 CEO 6人의 현장 스토리
중소기업의 작은 힘이 모여 한국경제의 큰 힘을 키운다

Business Up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중소기업의 미래 생존 전략

16 Theme
한국의 현 산업구조와 중소기업의 미래

18 Strategy
중소기업,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되어라!

22 Practice
방향타를 잡은 리더, CEO에 의해 중소기업의 생존이 결정된다!

Management Up

24 CEO Story
(주)오복식품 채경석 대표이사
기업의 깊은 맛은 '신뢰'에서 우러난다

30 Consulting
에너지 절감 노력, 탄소배출권을 통한 수익으로

32 Tax Accounting
부동산 등을 이용한 효과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

34 Care
중소기업 지원, 셀온(Cell-On)으로 통(通)하다

Economy Up

38 IBKeri Economic Report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42 IBKeri Industry Report
블록체인의 이해

46 Opinion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의 틀

50 Corporate Ecosystem Series
한국중부발전과 지역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 가치 창출

CEO Up

54 Classics&Philosophy
나는 자유롭고 싶다

56 Biz&Culture ① 미래를 담은 드라마

57 Biz&Culture ② 떠나지 않아도 낯선 곳으로

58 Events 이달의 행사·전시

60 Thinking

발행일 2017년 8월 1일(통권 150호)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429 **발행인** 김도진 **편집인** 고대진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196 **Fax** 02-729-6605 **기획** IBK경제연구소 **편집·디자인·제작** (주)알에이치코리아(02-6443-8889) **인쇄소** 알에이치홀딩스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공유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

'상식의 제품이 아닌 상상의 제품을 만들자.'

독특한 사훈을 가진 회사가 있다. 광학 제조 장비, IT 및 로봇 장비 등을 만드는 (주)대호테크다. '2016 미래를 이끌 존경받는 기업인'에 선정되어 학계와 중소기업 사이에서 널리 화제가 된 회사이기도 하다. 특히 **삼일사석육일공**(삼십 세까지 1억 원 모으기, 사십 세까지 석사 학위 취득, 육십 대에도 일하며 10억 원 모으기)이라는 성과보상제도로 유명하다. 이 회사에는 표면적인 성과보다 더 놀라운 점이 있다. 조직과 권한을 공유(팀장=사장)하고, 이익과 미래도 공유(이익의 10%는 직원에게)한다는 사실이다. 지역, 학교, 사회에 나눔 경영을 펼치는 것은 물론이다. 공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리더십은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다. 20세기 초반에는 각 기업과 연구자들이 리더의 특성과 행동에 주목했다. 리더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파악하는 수직적 리더십이 주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리더의 특징과 행위 외에도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의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황적 리더십(Situational Leadership)이 각광을 받았고, 1980년대부터는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 섬김 리더십(Servant Leadership) 등 다양한 리더십이 등장했다. 특히 파생 상품으로 위장한 탐욕적 거래를 통해 비이성적 성과 만능주의를 불러온 2000년대의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은 2008년 리먼 사태를 계기로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어떤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는가? **지금 세상을 불확실성과 양극화의 시대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시대에 적합하다고 평가받는 리더십으로 선구자적 인사이트(Insight)를 가진 창조적 리더십(Creative Leadership)과 공유의 리더십(Shared Leadership)이 있다.** 창조적 리더십은 CEO에게 창조적 영감 및 상상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아무나 가질 수 없고, 그 누구도 쉽지 않다. 그에 반해, 공유의 리더십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지만, 아무나 발휘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공유의 리더십이란 '조직 내에서 성과 달성을 위해 서로를 이끌기 위한 조직 내 개인 간의 역동적이며 상호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Pearce&Conger, 2003)이다. 디클란 피츠시몬스(Declan Fitzsimons) 교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공유의 리더십이 사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How Shared Leadership Changes Our Relationship at Work?)'(2016)이라는 연구를 발표하며 공유의 리더십이 사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곧 조직의 성과로 이어진다고 했다. 앞서 언급한 (주)대호테크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공유의 리더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지금의 시대는 과거와는 다르다.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저성장은 모든 세대의 기대 수준을 낮춘다. 특히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좋은 일자리, 높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독스(일할 사람 부재 vs. 일할 회사 부재) 해결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공유의 리더십은 청년 일자리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조직과 권한, 이익과 미래의 공유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적합하다.** 공유의 리더십이 사회 전반에 나비효과를 가져오는 세상을 보고 싶다.

이달의 경제 키워드 10

GDP 성장률 3% 상향을 목표로 한 새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출범, 45일 만의 추경안 통과 등 그동안 얽혀 있던 문제가 하나씩 매듭이 풀리는 양상이다. 여전히 불안한 요소도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❶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3%

문재인 정부가 지난 25일 올해와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로 올리겠다는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기본 방향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일자리 중심 경제, 합리적 보상 체계를 정립하는 공정경제, 융·복합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혁신성장 네 가지다.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새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❷ 진통 끝 추경안 통과



11조 333억 원

추경안이 지난 22일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11조 1,869억 원)에서 1,536억 원가량 감액한 11조 333억 원 규모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융자 8,000억 원, 관광산업 융자 지원 400억 원이 감액되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가뭄 대책 1,077억 원, 평창올림픽 532억 원 등이 있다.

2.8%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무디스(Moody's)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적·제도적·재정적 강점에 의해 향후 5년간 2~3%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 국가 신용 등급을 현행 등급인 'Aa2(안정적)'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등급 사유는 높은 수준의 경제 회복력, 적정 수준의 정부 부채, 낮은 대외 위험성 등으로 밝혔다.

2조 1,161억 원

6·19 부동산대책 발표 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여전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5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365조 909억 원(7.19 기준)으로 한 달 전 362조 9,748억 원보다 2조 1,161억 원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한 달간 상승세가 이어지며 누적 상승률이 1.26%에 달했다. 새정부 첫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❻ 무디스, 한국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❼ 6·19 부동산대책 불구, 주택담보대출 2조 원 증가

❸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출범



4실 13국 41과

지난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 출범했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차관, 4실, 13국, 41과로 구성된다. 장·차관 아래로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이 신설되었으며, 기획조정관이 기획조정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인원은 현재 353명에서 70여 명이 증원되어 431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위상의 격상과 적극적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0억 달러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철강을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바 있어, 이번 개정에서 미국의 對한국 자동차 및 철강 무역적자 해결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협상 시 향후 5년간 수출은 최대 170억 달러 감소, 일자리는 15만 4,000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❽ 美,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

❹ KOSPI 최고치 경신



2,450.06

코스피지수가 지난 7월 13일 사상 최초로 2,400선을 돌파한 후 7거래일 연속 기록을 갈아치우며, 21일에는 2,450.06의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다. 그동안 지수 상승을 억누르던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데다 국내 기업의 실적이 호조세를 나타낸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강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조 9,190억 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가 2020년까지 연장된다. 1992년 신설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법 7조)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일몰 기한이 연장된 바 있으며, 올해 연말로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현행 감면 기준과 감면율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예상 감면액이 1조 9,1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❾ 중기 특별세액 감면 2020년 연장

❺ 최저임금 역대 최고 인상액



7,53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을 2018년 최저임금으로 정했다. 이러한 인상 폭은 지난해 인상률인 7.3%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10%가 넘게 인상된 것은 지난 2007년 12.3% 이후 처음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 완화는 물론 소비 증대로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802㎞, 933㎞

북한이 지난 7월 1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이날 '화성-14형'에 대해 발사각을 최대한 끌어올린 '최대 고각발사' 방식으로 최고 고도와 비행 거리가 각각 2,802㎞, 933㎞였다고 발표했다. 세계 각국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도발로 정부의 대화 노력이 쉽지 않아졌다는 평가다.



❿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성공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특별 인터뷰

동반자금융, 3-up을 향해

1961년 8월 1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IBK기업은행이 창립 56주년을 맞이했다. 도전으로 가득한 시간이 지나는 사이, IBK기업은행의 위상은 크게 변했다. 그 발자취는 우리나라 산업과 중소기업의 역사이자 위기를 딛고 약진해온 금융사이기도 하다. 그간 IBK기업은행이 보여준 열정은 향후 100년의 도약을 위한 자양분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동반자금융을 통해 혁신 은행의 디딤돌을 다지고 있는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을 만났다.

IBK기업은행이 창립 56주년을 맞았습니다. 은행장께서는 56년의 절반이 넘는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IBK기업은행에서 근무하셨기에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취임식 때가 떠오릅니다. 단상에 오른 순간, 지난 56년 역사의 무게감이 어깨에 전해졌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이겨내기 힘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서민의 애환을 함께해 왔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중소기업 지원을 더 늘렸고, 고객이 힘든 순간에는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타 시중은행과 달리 IBK기업은행은 M&A 한 번 없이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장을 일궈왔습니다. 그런 역사였기에 더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고, 동시에 4차 산업혁명으로 들끓고 있는 지금,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만난 중소기업 CEO들은 대부분 경영 환경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반대로 새로운 도전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아이디어 창출과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성장을 멈추면 바로 도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은행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혁명적 변화기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중소기업 금융 특화 은행인 IBK기업은행에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IBK기업은행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단순한 자금 공급자(Supplier)로서, 또 성장 정체기인 현재에는 금융 조력자(Supporter)로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지원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경계도, 한계도 없는 향후 시대에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성장 동반자(Partner&Facilitator)로서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BK기업은행은 그 변화의 첫걸음으로서 동반자금융을 적극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06
중소기업
CEO REPORT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동반자금융'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동반자금융이란 은행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개입해 애로 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IBK기업은행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재도약-선순환을 지원하는 동반자금융(3-up)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장 초기 기업의 맞춤형 금융 지원을 체계화하는 '성장금융(Scale-up)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창업 3Plus 프로그램', '엑스퍼트(Expert) 창업 프로그램' 등 창업·벤처기업 특화 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와 기업별 맞춤 컨설팅 및 멘토링 역량을 더욱 강화해 대출자이자 컨설턴트, 멘토, 투자자 역할도 함께 수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창업 후 안정화된 기업의 기초 체력 강화를 지원하는 '재도약금융(Level-up) 플랫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 인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나아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 지역을 거점 삼아 'IBK아시아금융벨트'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IBK기업은행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스마트워킹센터, 어린이집 등 복지 인프라를 구성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기존의 'IBK잡플러스'를 개편해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우수 인재 유입에 힘써 새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동력원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성장 이후 시기를 지원하는 '선순환금융(Cycle-up) 플랫폼'으로, 이는 기업의 시장 진·출입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간 M&A 시장은 아직 조성도 되어 있지 않고, 관련 정보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M&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RM 딜(Deal) 포털'을 구축해 중소기업 M&A 중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가업 승계가 곤란하거나 자발적인 사업 정리를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엑시트(Exit) PEF 운영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취임 후 첫 창립 기념일입니다. 앞으로 IBK기업은행의 비전과 중소기업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꿈은 100년 IBK기업은행을 향한 단단한 반석을 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반자금융'이라는 새로운 DNA가 IBK기업은행의 임직원, 제도, 시스템 등 은행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나아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중소기업 지원에 필수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 앞으로 '이익을 내는 성장(Profitable Growth)'을 추구할 것입니다. 대면 채널을 통해서는 고객과 '관계 맺기'에 집중하고, 비대면 채널은 차별적으로 디지털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강한 경쟁력으로 내실(實)을 극대화하고, 탄탄한 조직 기반 위에 솔선수범 행동(行)하며, 변화와 혁신을 힘(力) 있게 추진하는 '실행력(實行力)'을 바탕으로 '강하고 탄탄한 혁신 은행'으로 변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경영 철학과 함께 최근 새롭게 선포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금융 파트너, IBK'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에는 은행에 대한 다양한 니즈가 있습니다. 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토대로 한 현지 금융 서비스, 기술 금융 지원 확대, 재무제표가 아닌 기업의 비전과 CEO의 기업가 정신, 아이템을 보는 투자 등 중소기업마다 요구의 형태도 각양각색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IBK기업은행은 계속해서 변화를 모색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IBK

editor_ 강한기

“중소기업의 작은 힘이 모여 한국경제의 큰 힘을 키운다”



1960s

산업 초창기

1960년대는 외국 자본에 의지해 제조업이 싹을 틔우던 시기다. 한국전쟁 직후 악화된 중소기업 자금난 극복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을 효율화하고자 했고, 이에 1961년 중소기업은행법 제정 및 IBK기업은행이 설립됐다. IBK기업은행은 외자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고, 기업지도부를 신설해 현장 지도와 경영 컨설팅 등을 병행해 중소기업 전담 은행으로서의 지원 체제를 확충했다.

원조 유통 기업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오흥배 회장

“한국 산업의 막힘없는 혈관이 되다”

1950~1960년대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은 농수산업이었다. 공업이나 제조업이 신생아 단계였으니, 서비스업은 따로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때 뿌려놓은 씨앗이 튼튼한 나무로 성장한 경우도 드물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국전쟁의 불씨가 수그러들면서 작은 상점 일부는 기업 형태로 성장했다. 대신정기화물자동차로 성장한 서울쌀상회도 그런 경우다. 자전거와 손수레로 어느 정도까지는 곡물 운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차량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1956년부터 차량 2~3대를 활용하며 운송업에 발을 들여놓았다. 서울쌀상회는 10년 후인 1966년에는 법인으로 전환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택배 회사 ‘대신택배’로 더 유명한 대신정기화물자동차는 그렇게 농산물 유통으로 시작해 전문 유통사로 발전했다.

오흥배 회장은 “제조업이나 수출입업체에 꼭 필요한 부품과 공정에 필요한 물자를 전국 대상으로 적기에 배송했다”며, 대한민국 산업 초창기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대신정기화물자동차의 과거에 강한 자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 산업의 혈관 역할을 해온 대신정기화물자동차는 꾸준히 발전해왔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에 대형 차량 사고를 겪으면서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지금과 달리 보험 체계가 미비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면 대처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다행히 IBK기업은행의 대출 자금 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1990년대부터 ‘택배’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고, 2000년대 이후 택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지면서 이 분야에 대기업이 앞 다투어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꽃을 피운 대신정기화물자동차는 60년의 경험과 노선 시스템, 자체 전산망을 갖춘 지금 두려울 게 없다. 대신정기화물자동차는 신속, 신용, 정성의 3대 서비스 가치를 실천하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IBK기업은행과 함께한 중소기업 CEO 6人의 현장 스토리

IBK기업은행이 창립 56주년을 맞아 IBK기업은행과 궤를 같이한 중소기업 CEO를 만났다.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던 가난한 대한민국이 지난 50여 년간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이
흘린 피와 땀 덕분이었다. 시대별 산업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는 중소기업 CEO 6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한민국 대표 단조 기업 '영신금속공업(주)' 이정우 대표

"한국 산업의 역사, 이제는 글로벌 리더로"



영신금속공업 창업자인 故 이성재 전 회장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중 한국전쟁 때문에 생업에 뛰어들었다. 염료 수입 회사로 종잣돈을 만든 그는 산업의 불모지와 같았던 1967년에 영신십자스크루제작소를 설립했다. 창업과 함께 국내 최초로 십자나사못을 개발했지만, 요소 산업이 낙후되고 공업 수준도 낮았던 당시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해외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못과 나사를 미국 건축 시장에 수출하면서 설비와 기술을 키워나간 결과 1971년에는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2세 경영자인 이정우 대표는 1970년대에 이미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장치 산업에는 초기부터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IBK기업은행은 영신금속공업의 창업 초창기부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매출에 비례해서 설비와 공장 규모를 신속하게 늘려야 할 때도 IBK기업은행의 지원이 늘 함께했습니다." 영신금속공업은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과 궤를 함께하며 발전해왔다.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는 아파트와 산업 설비가 우후죽순 생겨나며 건축업이 활기를 띠었고, 영신금속공업은 특수 제품을 개발하며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자동차 산업에도 적극 참여한 결과 지금은 매출의 80%를 이 부문에서 거두고 있다. 현재 영신금속공업은 다수의 글로벌 자동차업체의 메인 벤더가 되어 과거 매출의 5배를 올리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재 미국과 유럽, 태국에 지사를 설립했다. "영신금속공업은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리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중소기업에는 글로벌 파이낸스가 필요합니다. IBK기업은행이 로컬 은행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금융 서비스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IBK기업은행과 함께 성장하길 꿈꾸는 이정우 대표의 이야기다.

1970s

산업 형성기

섬유, 철강, 전자, 선박, 기계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시기다. 기업은 내수 산업을 넘어 수출 산업화에 전념했다. IBK기업은행은 정부의 수출 산업화 촉진 및 신용대출 확대 정책에 맞춰 담보 능력이 취약하지만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때 신용조사부와 특별금융부가 신설되었다.

10
중소기업
CEO REPORT



전자통신 핵심부품 제조 기업 '써니전자(주)' 곽경훈 대표

"산업화의 선봉, 21세기에도 앞장선다"

1966년 9월 한국산업단지 공단 1호 입주업체로 창립한 써니전자는 이듬해 2월부터 전자통신 분야의 핵심부품인 수정 진동자를 생산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정 진동자와 그 응용 제품 한 분야에만 매진해오고 있다. 산업 초창기 열악한 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산업을 육성하려 했다. 당시 전자 산업의 핵심부품인 수정 진동자는 미국과 일본에서만 생산하고 있었다. 이에 써니전자는 일본의 선진 기술을 습득해 창립 1년 만에 수정 진동자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후 써니전자의 수정 진동자와 응용 제품은 1980년대 산업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전자 산업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비싼 일본산 전자부품을 대체하면서 완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였고, 품질에서도 우위를 확보한 것이다. 써니전자의 수정 진동자는 국내 가전 3사에 공급되며 대한민국 전자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84년 제21회 수출의 날에 1,000만불 수출탑과 산업 포상을, 1987년에는 2,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그 후로도 써니전자의 발전은 계속 이어졌다. IBK기업은행과의 협력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창사 초부터 우호적이었던 관계는 본사를 충주로 이전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낮은 단가로 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곽경훈 대표는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제 산업화 시대의 개념을 넘어 정보화 시대, 앞으로는 무인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에 있습니다. 써니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적인 세계의 통합을 구현하는 신제품 수정 진동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시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장용 부품 산업 개발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 요구하는 고난도의 스피디한 전자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자부품 산업, 특히 수정 진동자 시장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하지만 써니전자는 끊임없는 전자부품 소재 개발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1980s

고도 성장기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대였다.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도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중심 체제로 전환됐고,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이 시작됐다. 기업은 가격경쟁을 벗어나 기술경쟁의 토대를 닦았다. IBK기업은행은 이 시기에 뉴욕사무소를 설치해 국제 금융 업무 활성화와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을 강화하고, 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강구조물 전문 기업, '(주)해성기공' 문일섭 대표

"위기에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기술력 하나"



1983년 설립된 해성기공은 초대형 건축물의 뼈대가 되는 철골 구조물과 강재 교량을 생산·시공하는 건설업체다.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여객 터미널과 월성원자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국세청 청사, 인천 송도 동북아 무역센터, 한강 세빛둥둥섬 등 해성기공의 포트폴리오에는 대한민국 초대형 건축물의 역사가 담겨 있다. 해성기공의 문일섭 대표는 일용 근로자로 서울 생활을 시작한 후 작업반장을 거쳐 연 매출이 1,600억 원대인 해성기공을 설립하는 역사를 썼다.

고도 성장기, 특히 건설 경기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해성기공은 가파르게 발전했다. 1991년에는 인천 남동공단에 최초의 자가 공장을 설립했고, 그 이듬해에는 인천 검단공단에 강구조업계 최초로 기계 자동화 라인을 갖춘 대형 공장을 세웠다. 1998년에는 충남 천안의 약 16만㎡(약 5만여 평) 부지로 공장을 확장 이전했다. 이때 IBK기업은행은 인천 남동 공장의 매각을 주선하고, 시설자금 등의 금융 지원에 나서며 해성기공의 발전을 거들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다. 3~4년에 한 번씩 원청업체의 부도를 경험했는데, IMF 이후에는 타격이 심각했다. 2000년에 원청업체들이 줄지어 도산하면서 회사의 존속이 위태로워진 것이다. 다행히 해성기공은 상황이 좋을 때 다른 업계에 눈을 돌리며 무리하게 차입 경영에 나서지 않았다. 외길만 걸어온 해성기공은 인천국제공항터미널 공사로 여러 원청업체의 부도 피해를 버텨냈다. 이후 굵직한 사회 간접 시설 공사를 수주하면서 더 탄탄한 기업으로 굳게 뿌리내렸다.

해성기공은 창립 이후 모든 수익을 공장 설비와 기술 개발에 재투자하고 있다. 문일섭 대표는 다양한 중소중견 기업이 발전할 때 건강한 경제구조가 형성된다며 IBK기업은행의 지속적인 도움을 청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금융을 확대하고 많은 지원 제도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IMF 이후 내수 시장의 일감은 줄어들었지만 문일섭 대표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친다. "직원을 감축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술력에 자신이 있으니까요. 해외 진출로 돌파구를 찾을 생각입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동반 진출하는 건 물론 해외 건설사와도 직거래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1990s

IMF 위기 극복

1980~1990년대 이어진 호황은 IMF 외환위기로 무너져 내렸다. IBK기업은행은 부실채권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살리기 총력자금조성운동을 전개해 8,938억 원의 신규 자금을 조성, 1조 7,000억 원 규모의 정부 자본금 출자와 함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당시 20% 내외의 중기대출 금리를 10%대 초반으로 대폭 인하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에 주력했다.

12
중소기업
CEO REPORT



광통신 부품 전문 기업, '켐옵틱스(주)' 이형종 대표

"특화된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의 힘"

켐옵틱스의 이형종 대표는 학위 과정에서 광통신용 부품 소자를 연구했다. 그는 대동소이한 소재를 이용하던 다른 연구자들과 달리 특수 고분자로 광통신 부품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고분자는 열이나 물에 약하기 때문에 상용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래도 확신이 있었던 그는 2000년 공동 창업에 나섰다. 결과는 참담했다. 현실은 연구소와 많이 달랐다. 경영 미숙과 자금난으로 이형종 대표의 첫 사업은 실패했다. 하지만 고통스럽게 개발한 기술이 산산이 흩어져버리는 걸 견딜 수 없던 그는 다시 창업을 준비했고, 이는 결국 2005년 켐옵틱스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과거의 실패 사례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2000년 당시에 비해 광통신 시장 분위기도 성숙해졌다.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세워진 켐옵틱스의 해외 진출은 의외로 쉬웠다. 기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특수 고분자 재료를 활용하면 집적도를 높이고 소모 전력을 낮추는 게 가능합니다. 가격경쟁력과 성능,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부품 산업 시장은 일반 소비재 시장과 달리 기업 대상의 전문 전시회를 중심으로 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광통신 쪽으로는 미국의 OFC와 유럽의 ECOC가 대표적입니다. 켐옵틱스는 이런 전시회에서 장비 제조사와 B2B 미팅을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춘 특화 제품을 개발합니다. 통신부품 회사에서 눈여겨볼 곳은 100개 업체 안쪽이기 때문에 세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신만의 장점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도전할 때 글로벌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형종 대표의 자신감이 엿보인다.

2006년 켐옵틱스에 대한 시장 반응은 매우 좋았다. 하지만 시기에 따라 투자가 집중되는 통신 분야의 특성 때문에 투자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실적이 부진한 경우도 있었고, 중소벤처기업으로서 대출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시중은행은 2006년의 영업 실적을 보고 켐옵틱스에 먼저 대출을 권유했다가 2007년의 재무제표를 본 후 제안을 철회했다. "IBK기업은행만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켐옵틱스에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임대 건물을 나와 사옥을 지어서 차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형종 대표는 켐옵틱스의 글로벌 경쟁력이 연구 개발 능력과 소재 중심 기술에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쟁력은 켐옵틱스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2000s

해외 시장 개척기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했지만, 한편으론 외국 자본에 큰 영향을 받는 불확실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2006년의 '수출 중소기업 특별대출'과 2008년의 'Fast-Track 프로그램', 2009년의 '수출중소기업 패밀리기업대출'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환율 변동이나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도록 지원했다.

보안 스타트 기업 '(주)에버스핀' 하영빈 대표

"한계를 벗어나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



일기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기록은 기록자의 삶을 엿보게 해준다. 또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기록자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첩이나 일기장을 책상 깊숙이 숨겨두곤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컴퓨터나 모바일, 서버에 담긴 코드가 함부로 유출되면 개인 차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특정 솔루션을 보호하기 위해 솔루션 내부에 탑재되는 보안 솔루션의 코드 역시 업데이트 전까지는 영원히 고정된 코드란 점이다. 아무리 뛰어난 보안 솔루션도 해커를 막기에 역부족인 이유는 간단하다. 해커는 솔루션의 고정 코드만 분석하면 되기 때문이다. 에버스핀은 '고정된 코드'라는 기존의 한계를 탈피하는 데서 출발한 기업이다.

5인의 에버스핀 창업 멤버는 이러한 콘셉트를 기술화하는 데 합의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세계 보안 시장의 방향을 바꾸어놓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처음 3년간은 각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밤이나 주말에 모여 연구 개발을 계속했고, 테스트 버전이 나온 후 투자 유치도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 IBK기업은행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하영빈 대표는 이야기한다. IBK 기업은행이 자금 투자한 펀드들이 에버스핀 성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이다.

에버스핀은 창업 후 2년간 기업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하영빈 대표와 에버스핀 임직원은 그 결과를 가지고 세계를 돌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결과는 낙관적이다. 인도에선 6,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민 앱에 에버스핀의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미국과 베트남에서도 곧 레퍼런스가 나올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중심적인 IBK기업은행의 정책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영빈 대표는 말한다.

"에버스핀은 IBK기업은행의 핀테크 랩에 2년째 소속되어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각 회사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나 해외 투자, 홍보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안 솔루션은 해외 솔루션의 복제나 모방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버스핀의 기술은 완전히 다른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해외 시장을 바라보는 하영빈 대표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가득 묻어난다. IBK

2010s

기술 기업/핀테크

2000년대 후반 이후 모바일 테크놀로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어버렸다. 금융(Finance)과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도 이러한 변화의 한 축이다. IBK기업은행은 2015년부터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핀테크 Dream Lab(드림랩)'을 개설해 사무공간에서부터 크라우드펀딩 기업과의 연계,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ditor_곽경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중소기업의 미래 생존 전략

Part 1.
한국의 현 산업구조와
중소기업의 미래

Part 2.
중소기업,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되어라!

Part 3.
방향타를 잡은 리더,
CEO에 의해 중소기업의
생존이 결정된다!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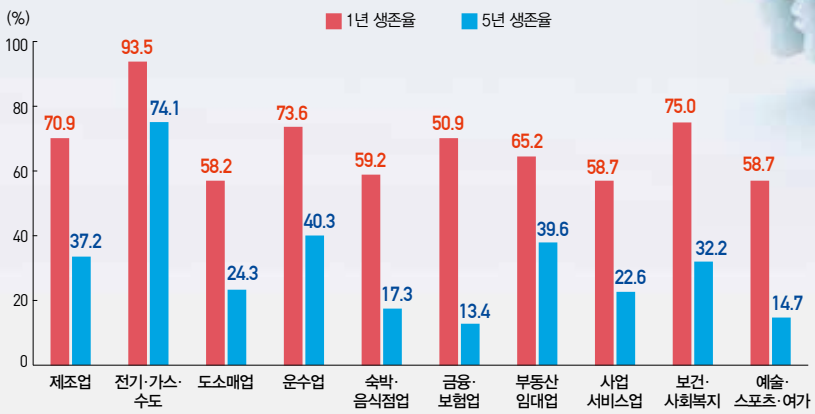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2016.12)



전 세계적으로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현상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기업 환경 역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상태다.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현재, 앞으로 한국의 산업구조는 어떻게 바뀔 것이며, 중소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주요 산업별 1년·5년 생존율



전체 1년 생존율 62.4%

전체 5년 생존율 27.3%

주 : 1년 생존율은 2013년 신생 기업 중 2014년 활동 중인 기업
자료 : 통계청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2016.12)



16
중소기업
CEO REPORT

한국의 현 산업구조와 중소기업의 미래

거침없는 속도로 변화하는 현장에서 기업들은 10년 뒤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열악한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위기감은 더욱 크다. 그러나 구하면 답은 있는 법.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실 직시가 먼저다.

한국경제가 극복할 세 가지 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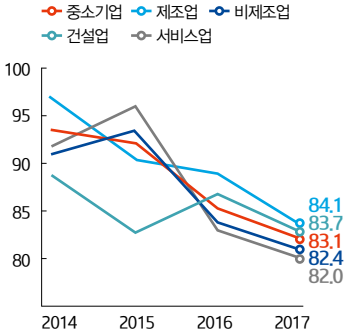
한국경제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함정은 저성장, 저투자, 저고용을 들 수 있다. 경제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3% 미만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성장의 이면에는 저투자와 저고용에 따른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자리 잡고 있다. 저성장의 여파는 청년 일자리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투자를 기피하거나, 해외투자를 늘리다 보니 일자리 유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 및 글로벌 교역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등 대외 여건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유럽연합(EU)의 결속력에 대한 우려, 중국경제의 금융 리스크 등 불안 요인이 사라진 건 아니다. 눈을 국내로 돌려보면, 정치적 리더십 부재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구조적 문제는 남아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를 견인해온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이 중국 등과의 가격경쟁 및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제조업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가공무역에 의존해오던 국내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위기감 또한 커지고 있다.

스마트한 조직으로 환골탈태해야

과거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해 우리만의 장점을 더한 추격형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제 한국경제는

연간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



주 : 중소기업 2,779개(제조업 1,310개, 비제조업 1,469개) 대상으로 조사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기업 경기 전망 및 경제환경 조사'(2016.12)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한다.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승부해야 하는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ICT 기반의 새로운 활동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2016년 다보스포럼 이후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인공지능(AI) 등이 범용화됨에 따라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함으로써 기업 규모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물리적인 생산요소 투입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로 그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규모의 이점이 사라지고 스마트하고 유연한 기업 조직이 등장할 것이다. ICT 기술을 활용한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및 첨단화를 통해 다품종-소량 생산방식이 보편화되고 제조 현장이 스마트공장으로 변모함에 따라 생산 효율이 극대화되는 등 제조업이 환골탈태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프트웨어, 센서, 솔루션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따른 제조 기업의 변화에 맞추어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기업 형태가 나타나고, 1인 메이커 기업, 네트워크형 기업, 개인형 프랜차이즈 기업, 제조-서비스 융합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출현할 것이다. 여기에 의료, 법률, 고등교육, 금융 등 진입 장벽이 높고 고가인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ICT 기반 벤처기업의 활동 공간이 확대될 것이다.

현실에 맞는 추진 전략 필요해

우리 중소기업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처한 현실은 암울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인식이 부족하고 대응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고 수요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핵심 인력 보유 현황, 신기술 도입 여건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중소기업은 대외 여건의 추이에만 기업의 운명을 맡기지 말고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회사 안팎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다시금 혁신을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IBK



writer_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경제학 박사. 2014년 8월 중소기업연구원 KOSBI(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5대 원장으로 취임.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공정거래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중소기업,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되어라!

나라의 99%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존재감은 미미하기만 하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은 이제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경제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미래의 신성장 동력 아이템 개발을 위한 단계적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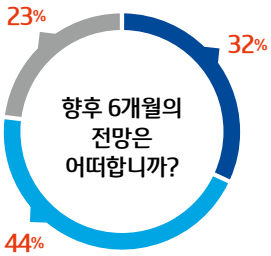
입호기내(入乎其內)하고 출호기외(出乎其外)하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은 생명체라면 피할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운명이다.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변화무쌍한 기술과 시장 환경 속에서 현재의 사업을 심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구나 요즘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변화의 주기가 빨라지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좌표를 설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럴수록 중심을 잃지 않고 혁신을 창출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기본은 다름 아니라 자기의 사업에 깊이 들어가는(入乎其內) 동시에 거기서 나오는 일이다(出乎其外). 입호기내와 출호기외는 근대 중국의 대표 지식인 왕국유(王國維)가 〈인간사화(人間詞話)〉에서 작가의 자세로서 그 대상 속으로 들어가는(入乎其內) 동시에 거기서 나오는(出乎其外) 노력을 언급한 데서 유래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 자세는 유효하며, 자신의 핵심 역량을 더욱 심화하는 한편, 거기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기존 역량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기존 것을 심화해 더 잘하기 위함이요, 반대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니 이 또한 핵심 역량의 지속 가능성과 관계 깊다. 이 둘은 결코 유리되지 않고 서로 포섭된다.

결국 과정에 일의 근본이 있다는 의미로 중소기업이 수많은 아이템 중 자신의 아이템을 특화하는 것과 그 아이템의 경쟁력,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 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경제, 산업구조로 보아 혁신은 선택이

기업의 미래 전망



주 : 페이스북 페이지 소유자의 월별 설문조사, 표본 2016년 12월 N=218, 2016년 11월 이후 총 표본 N=641
자료 : 페이스북, OECD, 세계은행 'Future of Business 설문 조사 - 한국'(2016.12)



각 중소기업은 각자의 사업 영역에 관련된 기술 흐름을 장악하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가운데 자신의 기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항상 파악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 6월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CES 아시아 2017'.

아닌 필수이며, 경로 창출은 생존 전략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더 이상 조연에 머물지 말고 주연이 되어야 한다. 각자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내생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기 정체성의 명확성

❶ 기술, 지식의 흐름을 파악하라

입호기내와 출호기외를 달리 얘기하면 깊이와 넓이를 도모하는 일이다. 각자의 사업 영역에 관련된 기술의 흐름을 장악하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가운데 자신의 기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파악하는 일이다. 특허나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미래의 기술, 지식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또 그 인용 관계를 살펴보면 어떠한 기술이 서로 연관되거나 융합되는지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나 기관이 기술, 지식의 흐름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지도 파악 가능하다. 일련의 기술, 지식 흐름의 지도를 작성하면 자신의 기술이 처한 위치를 가늠할 수 있고, 미래의 지향점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도 있다.

❷ 시장 구도를 분석하라

대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체 시장 구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

신이 속한 아이템과 관련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전체의 경쟁 구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기업과의 하도급 구조에 안주하게 되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이제 중소기업도 특정 기술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달리는 진정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세계 시장 경쟁 구도와 글로벌 밸류 체인상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로 향할 것인지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트렌드도 국내외 시장을 막론하고 예의 주시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 개발에 반영해야 한다.

❸ 융합에서 길을 찾아라

근래 4차 산업혁명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지만, 실은 ICT 기술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차 산업혁명이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ICT 기술 자체의 확산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ICT 기술과 기존 산업의 본격적 융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융합의 범위는 점점 넓어져 기술의 편리성, 혁신성,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 심미성, 인간의 행복 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ICT 기술의 발전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물론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식의 범위도 다학제적으로 넓어질 뿐만 아니라 암묵적 지식의 소통도 중요해져 본격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융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의 제약이 있지만, 연구 개발 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그룹과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융합의 파도를 탈 수 있다.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 상공인 등 공식·비공식적 네트워킹 활동에 적극 참여해 생태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내생적 혁신 역량의 강화

❶ 과정에 충실하라

흔히 '토요타 방식'으로 알려진 생산방식은 다품종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유연 생산방식을 채택해 고도의 생산성을 달성한 경우다. 여기에는 전체 생산 라인의 상황이 개별 작업장에 지체 없이 전달되어 각자의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정보 공유 시스템도 큰 몫을 담당했다.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회계상의 이윤, 매출액 등의

목표치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정 관계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등 과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내생적 혁신 역량은 내부에서 비롯되며, 여러 혁신 요인이 내부의 끈끈한 인과관계를 형성하면서 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렇게 되면 작업의 과정과 결과가 일체화되는 경지에 이른다. 너무 과도하게 결과에만 집착해서는 진정한 내생적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 융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의 제약이 있지만, 연구 개발 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그룹과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융합의 파도를 탈 수 있다.

❷ 현장에 몰입하라

기술이 종횡무진으로 융합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을 정해놓고 모두가 따라가는 하향식(Top-down) 일변도의 경영 방식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혁신의 주체를 타율적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하향식이 불가피한 환경이지만, 획일적인 혁신 풍토를 지양하고 내생적 혁신을 지향하려면 상향식(Bottom-up) 혁신 역량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 근무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대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와 현장 근로자 간의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직무의 전문성, 강도, 위험 정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기술자와 기능인이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크고 작은 혁신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함으로써 밑으로부터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❸ 스스로 조직화하라

현장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공정이 현장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새로운 공정을 개발했다면 이를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확장성에 제약이 따른다. 토요타 방식도 수많은 전문가가 유연 생산방식을 연구해 하나의 표준으로 이론화했기 때문에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

이처럼 현장과 이론 간의 쌍방 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생적 혁신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 이는 곧 입호기내와 출호기외를 쉼 없이 실천해야 가능하다. IBK



writer_ 이덕희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뉴욕주립대학교(Buffalo)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한국은행 자문교수, 한국복잡계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장기신용은행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방향타를 잡은 리더, CEO에 의해 중소기업의 생존이 결정된다!

중소기업 CEO는 전문 경영자나 일반적 조직의 리더와 달리 고유한 세 가지 책임이 있다. 바로 '조직 생존', '이익', '사람'에 대한 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기업 외부 환경의 흐름을 잘 간파하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지속 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균형 있게, 또 전략적으로 펼쳐야 한다.

기업 경영 성과 관련 전략 이론

❶ 산업구조 관점 (Positioning View)
개별 기업이 산업 내 어떤 경쟁적 위치를 점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결정된다.

❷ 자원 기반 관점 (Resource-Based View)
해당 기업이 보유한 자원의 '가치성(Valuable)-희소성(Rare)-모방 불가능성(Inimitable)-조직 체화성(Organized)'에 따라 기업 성과가 결정된다.

❸ 동태적 역량 관점 (Dynamic Capability View)
기업 성과는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에 기반한다.

❹ 최고경영층 관점 (Upper-Echelon View)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최고경영층의 특성에 따라 기업의 경영 성과가 결정된다.

'본질(本質)'과 '시류(時流)'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최근의 변화무쌍한 기업 환경에서 특히 중소기업 CEO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본질'과 '시류'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다. 특히 '업(業)'을 재정의하고, 시장과 교감할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사업에서 불변하는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중소기업 CEO는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의 변화된 환경이나 트렌드, 즉 '시류'를 어떻게 우리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도록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본질'을 망각한 채, 또는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시류'에 함몰되거나 휩쓸려 '주객전도(主客顚倒)'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매우 많다.

중소기업의 현재 모습은 CEO의 역량과 자질의 축소판

학문으로서 경영 전략 분야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 있다. 그 첫째는 개별 기업이 산업 내 어떤 경쟁적 위치를 점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결정된다는 산업구조 관점, 둘째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자원의 '가치성-희소성-모방 불가능성-조직 체화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자원 기반 관점, 셋째,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는 역량에 기반한다는 동태적 역량 관점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표적 경영 전략 이론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를 설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새롭게 제시된 또 다른 이론이 최고경영층 관점(Upper-Echelon View)이다. 이는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최고경영층의 특성, 특히 인지구조에 따라 전략적 대응책과 행위가 달라지고, 이것이 기업의 경영 성과를 결정짓는다는 시각이다.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를 설명하는 데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최고경영층 이론'을 중소기업에 적용해보면, 중소기업에 CEO의 역량과 자질은 기업의 경영 성과를 결정짓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생존 여부도 CEO의 역량과 자질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겠다.

CEO의 역량과 자질의 계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

기업 CEO의 역할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가적 관리자(Entrepreneurial Manager)'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 역할이다. 그리고 조직이 일정한 성장을 행하며, '운영자적 관리자(Operational Manager)'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반 운영 체계를 정교화하며, 효율성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임계 수준 이상으로 조직의 규모나 업무의 범위가 확장되면, 전략의 수립, 인재의 발굴과 육성, 조직적 역량의 계발 등 '전문적 관리자(Professional Manage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과 지위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즉,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 변화, 조직 규모의 변화, 업무 복잡성의 증대 등에 따라 중소기업 CEO의 역량과 자질 또한 꾸준히 계발되어야 한다. 창업 초창기 함께했던 '창업 멤버'들이 조직이 성장하는 것과 흐름을 같이하며 성장하지 못해 '계륵(鷄肋)' 같은 입장에 처하는 상황을 자주 접한다. 이런 사례가 중소기업의 CEO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다. CEO의 역량과 자질이 조직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가 진단'이 필요한 이유다.

중소기업의 CEO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과 자질을 계발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조직 생존에 대한 책임, 이익에 대한 책임, 사람에 대한 책임과 같이 중소기업 CEO에게 주어진 고유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 기업이라는 또 하나의 '사회', 그리고 '조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멋진 도전'이 우리 중소기업 CEO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IBK



writer_ 이영달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Entrepreneurship 트랙 주임교수
경영학 박사. 법정관리인 양성 과정을 수료하였고, 기업 실패와 재도전 정책 개발과 교육에 힘쓰고 있다. 2015년부터 뉴욕시립대학교 지클린경영대학원에서 방문 학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창업-성장-수확/정리-재창업/재도전'에 이르는 기업의 전주기적 활동과 기업생태계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주)오복식품 채경석 대표이사

기업의 깊은 맛은 '신뢰'에서 우러난다

(주)오복식품은 IBK기업은행의 창립 기념일인 1961년 8월 1일 거래를 시작했다. 재료와 시간, 그리고 정성을 아끼지 않을 때 좋은 장이 나오는 것처럼 기업과의 신뢰도 마찬가지다. 56년간 IBK기업은행과 신뢰를 지키며 장인의 길을 걸어온 (주)오복식품의 채경석 대표이사를 만나보았다.



군납업체에서 민수 기업으로

오복식품은 전쟁 중인 1952년 창업해 65년째 장류 산업의 외길을 걸어온 식품 전문 기업이다. 오복식품을 설립한 故 채동우 전 회장은 군인이었다. 전시 상황에서 해병대 인사 참모가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다. 하지만 그는 지나칠 정도로 고지식했다. 융통성 없이 원리 원칙에 매달리는 성격 때문에 더 이상 군대에서 비전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황금 보직을 던져버렸다. 그리고 소령으로 예편한 후 고추장을 만드는 군납업체를 설립했다.

원칙을 지키는 성격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과거의 군납업체답지 않게 (주)오복식품은 재료를 제대로 투입하고 공정을 철저히 지켜가며 고추장을 만들었다.

원칙을 지키는 성격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과거의 군납업체답지 않게 오복식품은 재료를 제대로 투입하고 공정을 철저히 지켜가며 고추장을 만들었다. 덕분에 좋은 평판을 얻자 군납업체를 아예 민수 기업으로 전환했다.

1974년, 故 채동우 전 회장은 28세의 채경석 대표를 회사로 불러들였다. 채경석 대표는 먼저 회사의 영업 실적, 재무구조, 수익 상태를 조사했다. 결과는 암담했다. 1970년부터 1974년까지 5년간 매출은 매년 20~30%씩 줄어들고 있었다.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질문만 하면서 다녔습니다. 다들 경쟁업체가 난립해서 어려워졌다는 외부 원인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한번은 아침에 출근했는데 공장에서 거대한 기계음이 났다고 한다. 채경석 대표가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보니 경비 책임자가 펌프로 회사의 간장을 퍼서 빼돌리고 있었다. 문제는 모든 부서에 이런 부정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암이 온몸 구석구석에 전이된 느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문제를 고쳐나갔지만, 어떤 부분은 제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더군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판단이 들면 일단 그 일은 뒤로 제쳐두고 가능한 것부터 바꿨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한 거죠. 그렇게 회사가 조금씩 바뀌니까 직원들도 열심히 뛰게 되었고, 자연스레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시간을 들여도 정도만 걷는다

하지만 개혁은 쉽지 않았다. 채경석 대표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법을 연구해서

Company History

- 1952 부산 영도에서 대동식품 설립
- 1965 (주)오복간장으로 상호 변경
- 1976 본사, 부산 감천으로 이전
- 1987 양조간장 K.S 표시 허가 취득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장 수상
- 198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우량 중소기업체로 지정
- 1990 오복공업사 설립, 자체 용기 생산 시작
- 1995 러시아 수출 시작
- 1996 간장 유해 물질 MCPD 제거 성공(특허)
  ISO 9002 인증 획득(업계 최초)
- 1997 생산성 향상 대상 대통령상 수상
- 1998 김해시 진영읍에 양조간장 전문 제2 공장 준공
- 2004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 2016 HACCP 인증

설명했지만, 관행과 기존 공정에 익숙했던 관리자들은 온갖 이유를 대며 채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채 대표는 다시 새로운 논리를 찾고, 그들은 다시 고개를 젓길 거듭했다.

"간장 살균기를 개발할 때 1년이 걸렸습니다. 과거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살균을 했습니다. 커다란 간장 탱크에 코일을 감고, 코일 속으로 뜨거운 증기를 흘려보내 간장을 데웠지요. 탱크에 간장을 넣고 빼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작업하던 사람이 빠지기라도 하면 인명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회사에서 직원이 화상을 입고 숨을 거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서적에서 연속 살균기라는 기계를 발견하고, 우리도 이런 걸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책에 나온 스케치는 너무 대략적이어서 구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없었지요. 열교환기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을 불렀지만, 그들은 스케치처럼 열교환기를 만들 순 없다며 그들이 해온 방식만 고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1년간 도면을 보면서 고민했는데, 어느 순간 이해가 되더군요. 하지만 우리 공장 직원들이나 열교환 전문가 모두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작소에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몇 달 후 기계를 가동해서 검증하는데, 확신이 있어도 조마조마하더군요. 다행히 기대 이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설득하고 공정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면서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았습니다."

채경석 대표와 오복식품은 시간이 걸려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직원도 점점 새로운 경영진을 인정했고, 시장 매출도 늘어갔다. 쉬운 샛길로 가자는 달콤한 유혹도 끊이지 않았지만 꿋꿋하게 원칙을 지켰다.

1970년대, 부산·경남의 많은 장류 기업들은 저가 원료를 사용해서 단가를 낮추고 있

(주)오복식품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위기에 항상 빛을 발했다.










원칙을 중요시하기에 (주)오복식품은 반세기 이상 기업을 지켜올 수 있었다.

었고, 오복식품 안팎에서도 재료의 품질을 떨어뜨려서라도 시장의 가격경쟁에 합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돌았다. 여기에 더해 부가세 신고를 속여서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1977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선 부가세제도가 시행되었다. 당시 많은 기업이 매출을 10분의 1 수준으로 속여서 신고하곤 했는데, 오복식품은 매출을 사실 그대로 신고했다. 문제는 오복식품의 거래처나 대리점 과표까지 잡혀버리는 데 있었다. 재료의 질을 낮추고, 부가세를 실제의 절반만 신고하자는 요구가 이어지자 채경석 대표는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고지식해도 옳은 길만 고집하던 아버지의 경영 이념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결심을 굳힌 채경석 대표는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은 한 방울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과표 누락 역시 1원도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 라디오에서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다. 오복식품을 제외한 부산 지역의 모든 장류 기업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홀로 원칙을 지킨 오복식품은 그렇게 부산·경남을 석권하고 경북 일부에까지 진출했다.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든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두 번의 간장 파동을 겪었다. 1980년대 중·후반, 우리나라 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간장은 화학식 간장이라는 뉴스가 터지면서 난리가 났다. 간장을 만드는 방식은 화학적 방식과 양조 방식으로 나뉜다. 삶은 콩을 짓이겨 메주를 만들고, 메주에 누룩을 바르면 콩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미노산으로 전환된

숫자로 본 (주)오복식품

1종
(발효균인 Aspergilus Oryzae)
오복양조간장 1개에 포함된 미생물의 종류

15공정
오복양조간장 1개의 제조 과정

130,090톤
(2001년 12월~2016년 12월)
지금까지 생산된 오복간장의 양

1,146톤
(2016년 기준)
1년간 러시아에 수출되는 간장의 무게

65%
(주)오복식품의 부산 장류 시장점유율



채경석 대표는 어렵게 개발해 (주)오복식품만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무료로 공개했다. 사람이 먹는 모든 음식은 절대 안전해야 한다는 평소 신념 때문이었다.

다. 분해해서 액화하면 간장이 되고, 덩어리는 된장이 된다.

이런 전통적인 제조법이 양조 방식인데, 친자연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콩을 염산으로 분해하고, 가성소다를 투입해 염산을 중화하는 화학적 간장 제조법이 유럽에서 나왔다. 며칠 만에 저렴한 간장을 생산할 수 있는 이 획기적인 방법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전해졌다.

가격경쟁력을 갖춘 화학식 간장은 나름대로 식품 안전성을 획득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송은 가짜 간장처럼 취급했다. 이런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우리나라 모든 장류 기업들은 양조간장의 대량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 허둥댔다. 그러나 해외에 설비를 주문한 대기업들과 달리 중소기업에는 여유 자금이 없었다. 그때 오복식품은 자체 제작으로 가장 먼저 양조 설비를 구비했다. 1970년대 이후 계속 이어온 연구 개발 경험이 빛을 발한 것이다.

1990년대 중·후반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독일과 일본의 장류 제품 부산물에서 위험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발견됐고, 그 이슈가 우리나라에도 언론을 통해 불거진 것이었다. 이때도 오복식품은 가장 먼저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냈다. 끈질긴 실험을 통해 독일과 일본이 자랑하던 부산물 함량 0.1%보다 더 낮은 0.03%의 결과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 채경석 대표는 TV의 한 토론에서 "어느 회사의 제품이 건 안심하고 간장을 사 먹고 싶다"라는 소비자의 발언을 보고 오복식품만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무료로 공개해 버렸다. 평소 그가 가지고 있던, 사람이 먹는 음식은 모두에게 절대 안전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혁신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오복식품의 혁신은 제품의 공정 개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990년대 오복식품은 중간 관리자의 결정 권한을 늘리고, 회사 전체의 의사 진행 속도를 높이는 책임 경영을 도입했다. 1997년 당시로선 놀라운 혁신이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오복식품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IBK기업은행이 오복식품의 혁신 사례를 다른 기업에도 전수하는 강연 기회를 만들면서, 책임 경영은 기업의 혁신 트렌드가 되기도 했다.

좋은 장이란 어떤 것인지 묻는 질문에 채경석 대표는 "맛이 좋은 장이 가장 좋은 장"이라는 답변을 내놓는다. 그는 어느 회사의 제품이건 원료나 공정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과거 간장과 된장을 잘 담그던 명문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가족 모두가, 그리고 직원 모두가 자연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을 때 제대로 된 장이 탄생하는 법이다. 중소기업이면서 지역 기반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복식품의 간장류는 전국 시장점유율이 20%에 달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해외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다. 오랫동안 전통을 고집해온 오복식품의 장맛이 러시아나 중동, 북유럽에까지 소문이 난 것이다.

재료와 시간에 인색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기업, 오복식품은 회사의 내밀한 속성까지 장류의 그것을 쏙 빼닮았다. 그래서 제품과 미래에 더 큰 기대가 실리는지도 모르겠다. IBK

editor_이중한
photo_강건호 pious studio

Points to Success

채경석 대표의 경영 원칙 3 <(주)오복식품의 사훈>

1 신뢰

채경석 대표의 혁신 경영은 톰 피터스의 해방 경영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과거의 경영 방식은 사규나 규정으로 직원을 묶어뒀다. 이는 직원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 경영에서는 직원을 매뉴얼에 가두는 대신 인간으로 존중하며 그의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려고 노력한다. 믿고 풀어놔도 사람은 걱정한 것처럼 방종하지 않는다.

2 존중

과거에는 관리자와 직원이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인 관계로 묶였다. 이렇게 되면 다양화되고 속도가 빠른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일선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고 알아서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출 수 있다. 일선에 선 직원을 스타로 만들고, 경영자는 명령자가 아닌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3 협력

사장이나 대표이사는 치어리더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를 돕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영자는 일선의 세세한 흐름을 모를 수도 있다. 모르면서 명령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직원을 해방시키고, 그들과 신뢰 관계를 쌓고, 함께 존중하며 협력해 나갈 때 회사의 발전도 가능하다.

에너지 절감 노력, 탄소배출권을 통한 수익으로

최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환경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부가적인 수입 창출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상쇄배출권

2015년 정부는 점차 심화되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력하는 의미에서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5년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출범시켰다. 이 제도는 에너지 사용 등에 따라 선정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기업(이하 할당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기업은 매년 정부에서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통해 할당받은 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감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이 배출권 할당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자체적인 노력으로 줄이거나 해당 기업 외부의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을 추진해 이를 정부로부터 '외부감축사업'으로 인정받아 일정 절차를 통해 배출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산업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외부감축사업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고효율 조명 교체, 공기 압축기 등과 같은 고효율 설비 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도입 등이 포함된다. 외부감축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발행받은 외부감축 실적은 할당 기업에 판매할 수 있으며, 할당 기업은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정부에서 부여받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외부감축사업 추진 메커니즘



자료 : 환경부

배출권 확보와 'IBK탄소은행' 컨설팅 서비스

외부감축사업제도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한 전력이 있는 중소기업 또한 절감 활동의 유형에 따라 정부로부터 외부감축사업으로 승인받아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른 배출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할당 기업 등에 판매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절차의 이행이 요구되며, 이는 외부감축사업 추진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IBK탄소은행' 컨설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에서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주요 내용은 외부감축사업 추진 가능한 사업 아이템 발굴, 외부감축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배출권 확보를 위한 외부검증 대응 지원, 확보된 배출권에 대한 판매 중개 컨설팅 등이다. 이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에너지 절감 노력과 관련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IBK



writer_ 김지홍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창업컨설팅팀 컨설턴트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희망컨설팅 프로젝트'에서 그린(Green) 경영 컨설팅, 탄소 시장 경영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다.

부동산 등을 이용한 효과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

성공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관련된 조항의 핵심을 이해해야 한다. 효과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므로 어차피 증여할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좋을뿐더러 절세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낫다.



증여하려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므로 증여세율에 변함이 없고 어차피 증여할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또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도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증여하면 현재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10년 후에 상속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 지금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므로 불리할 수도 있으나, 상속세를 합산하는 경우에도 기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함은 상쇄된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의 효과적 활용

증여재산공제제도를 활용한다.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성년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인 자녀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1,0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 가능하다. 가령, 자녀가 출생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세가 되는 해에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하고 20세가 되는 해에 5,000만 원 증여한 금액을 복리로 예금하면 결혼 자금 등 목돈이 될 수 있다. 증여는 여러 명에게 나누어 하는 게 유리하다. 증여재산공제는 납세 의무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른 한도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인원수에 비례해 절세 효과가 커진다.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에게 증여하면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계산하므로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증여공제액을 최대

한 활용한다. 배우자 사이에 10년 주기로 6억 원씩 증여할 경우 30년이면 18억 원을 증여할 수 있다. 부동산 증여 시에는 전체를 증여하지 말고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증여한다. 자녀는 건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토지는 부모 소유로 두면 부모가 자산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건물 일부 지분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임대료 수입을 통해 최소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가 확보된 자녀 소득을 지원해줄 수 있다. 물론,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자녀가 지급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부동산가액에서 담보대출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다. 대신 부모는 담보대출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면 늘어나는 양도소득세보다 줄어드는 증여세가 더 큰 경향이 있다. 하지만 취득가액이 낮아 매매 차익이 큰 부동산은 높은 세율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낮은 공시지가를 활용한 증여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알기 힘든 단독주택, 연립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공시지가가 시가 대비 많이 상승했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저가의 토지를 구입해 증여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6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1억 2,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6억 원으로 공시지가가 3억 원인 임야를 구입하면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5,0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증여세가 7,000만 원 절세된다. 즉, 현금 증여보다는 부동산이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큰 것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 중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미래 상승 가치가 큰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용 부동산, 장래성 있는 비상장 주식, 저평가된 상장 주식이나 펀드 등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증여 시 주의점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현금 증여도 같이해야 한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전 증여 시 증여받은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그 부동산에 해당하는 증여세, 취득세 등도 부모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까지 증여할지 사전에 검토해 보아야 한다. IBK



writer_ 김구열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세무사
중소기업 CEO를 비롯한 VIP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세무 전문가다.

중소기업 지원, 셀온(Cell-On)으로 통(通)하다

중소기업과의 행복한 동행, 호남권 기업성장지원센터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월간 〈파워코리아〉 2017년 5월호)', '글로벌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곳(광남일보, 2017.3.16)'. 언론의 찬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4차 산업혁명과 히든챔피언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기업성장지원센터가 그 주인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사업으로 수행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성장지원센터 사업이 중소기업에 반향을 일으키는 비결은 무엇인가?

문제도 해답도 기업에 있다

"기업성장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만나기 전에는 매출이 150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센터의 중점 육성 기업으로 선정되어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 지 불과 2년 만에 2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직원들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용 시트 제조 기업인 (주)씨엠텍의 홍종의 대표는 센터의 정경섭 전문위원을 만나면 함박웃음부터 짓는다. 그만큼 놀라운 성과를 일궈냈기 때문이다. 비단 (주)씨엠텍뿐만이 아니다. 센터에서 지원한 기업의 작년 평균 매출 성장은 무려 17%, 고용 성장은 16%, 수출은 35%에 달한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거둔 경이적인 실적이다.

(주)씨엠텍이 센터 덕분에 거둔 실질적인 효과는 불량률 저하, 품질 개선, 신사업 진출 등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더 크다고 홍 대표는 말한다.

"중점 육성 기업으로 선정된 뒤 낮은 레벨의 PMS*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회사가 우물 안 개구리였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장인 제가 아무리 혁신의 필요성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던 임직원들이 스스로 혁신해야겠다고 말하더군요. 우리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신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센터 사업이 남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호남권 센터를 이끌고 있는 전태웅 센터장은 기업성장지원센터의 독특한 지원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업의 문제는 기업이 가장 잘 압니다. 기업에 맞지 않는 옷을 권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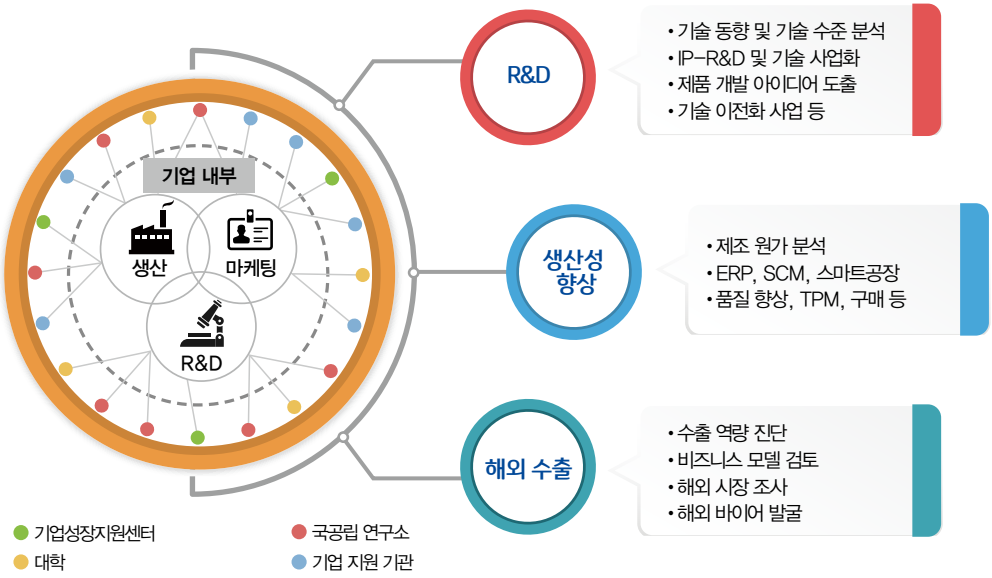
기업성장지원센터는 해당 기업과 논의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 문제를 해결한다. 왼쪽부터 정경섭 전문위원, (주)씨엠텍 홍종의 대표, 전태웅 센터장.



* PMS(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생산성 경영체제. 기업 생산성 성과와 경영 시스템 수준을 조사 분석한 후 결과를 평가해 기업의 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1~10단계 등급(Level)으로 구분된다.

Cell-On(Cell-Open Network) 프로그램

기업성장지원센터의 중점 육성 기업인 글로벌 강소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육성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개방형(Open Innovation) 세부 지원 프로그램



자료 : 기업성장지원센터

그래서 우리는 센터 사업을 추진할 때 세 가지 철학을 견지합니다. 첫째, 철저하게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둘째, 기업 스스로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셋째, 기업 스스로 혁신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주는 셀온(Cell-On)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성장지원센터 사업은 2011년 처음 시작됐다. 전국 주요 거점 4개 지역에서 지원 사업을 시작해 2015년에 7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호남권 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전 센터장의 말이다.

"우리는 과제가 선정되면 기업과 논의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개방형 혁신)입니다. 전문위원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수많은 애로 사항을 모두 해결할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 스스로 외부의 어느 전문가가 최고 적임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우리 전문위원이 힘을 합쳐 애로 사항을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실제로 (주)씨엠텍은 스스로 외부 전문가를 선정, 센터와 협업해 과제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오픈 이노베이션 결과 금형 제작 횟수는 월 200회에서 180회로 줄었고, 품

질은 월등히 좋아졌다. 오픈 이노베이션과 협업은 센터만의 독특한 플랜 아래 수행된다. 센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셀온(Cell-On)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 셀온을 기획한 전 센터장은 이렇게 말한다.

"최근의 경영 여건을 보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과 기업, 기업과 국가, 기업과 지역 공동체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을 통한 지원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셀온은 개방형 혁신 활동의 최소 단위로, 혁신 활동 중심으로 모인 기업의 내외부 인적자원 연계 시스템이다.

셀온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주)씨엠텍 홍 대표의 말이다.

"예전에는 혁신 테마가 정해지면 센터에 소속된 전문위원께서 컨설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선정하라고 하시더군요. 덕분에 저희가 진출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의 라인을 가장 잘 아는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지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진출 역량도 기업 스스로 기르도록

센터가 호평받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다. 해외 진출 지원도 찬사 일색이다. 전 센터장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 기업은 정부 기관을 이용해 해외 시장을 노크했습니다.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기업이 알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바이어, 협력기관, 무역상, 금융 기관의 특성과 연락처, 품목 등을 체계화한 데이터베이스를 산업별, 국가별로 구축하는 중입니다. 기업이 품목과 국가, 특성을 지정해 스스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만드는 방안입니다."

네트워크 구축 외에 직접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지난 7월 10일에 개최된 인도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가 그 중 하나다.

"보통 세미나는 일방적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인도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을 사전 모집했고, 그 기업들로 하여금 진출 분야와 품목, 기업 소개서를 미리 작성하게 해 인도 바이어에게 보냈습니다. 바이어가 시장조사를 마친 후, 각 기업들에 관련 상황을 설명해주는 방식의 세미나였습니다. 수출 전략 상담회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센터의 수출 지원 사업은 실제로 기업들에 큰 힘이 되고 있다. LED 디바이스

셀온 추진 프로세스

1 step
기업 연계 외부 자원 수집 : 기업 내부와 연계된 외부 자원, 센터와 연계된 외부 자원을 수집, 통합

2 step
기업 연계 외부 자원 선별 : 혁신 테마별로 기업 성장에 적합한 외부 자원 선정

3 step
혁신 테마별 셀온 조직화 : 기업 내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

4 step
셀온 프로그램 수행 및 모니터링 : 진행 상황 체크 및 성과 여부 확인



호남권 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지원한 기업의 지난해 평균 매출 증가는 무려 17%이며, 고용 성장은 16%, 수출은 35%에 달한다. 지난 7월 인도 및 동남아 시장 수출 전략 수립 세미나에 참석한 CEO들과 함께.

(Device) 연구 제조 기업인 올릭스(Allix)가 대표적이다. 센터는 유럽 진출을 지원하고자 현지 면담이 가능한 4개의 바이어와 지방자치단체를 발굴, 지원했다. 덕분에 이 회사는 마이문(Mymoon) S.R.L 등 3개 바이어로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늘 곁에서 함께 걷는 동반자로

금융 지원도 센터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주)디에이치글로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센터의 코칭 덕분에 새 전기를 맞았다. 이 회사는 김치냉장고만 제조하는 기업이었다.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일이 없어 약 800명에 달하는 전 임직원을 비정규직으로만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숙련공 부족과 비정기적인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센터를 찾았다. 금융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끈 조철호 금융전문위원의 설명이다.

"기술이나 시스템이 우수한 회사임에도 계절 상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영 분석을 해보니 사계절 상품인 냉장고 신규 라인을 구축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시설 구축에 많은 자금이 필요했지만, IBK기업은행을 함께 방문, 기업이 시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공장 가동을 지속하며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시작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히든챔피언으로 가기 위한 길에는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각종 기관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기업 스스로 혁신하는 데에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셀온 프로그램이 주목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전 센터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앞서가는 센터가 아니라 늘 기업 곁에서, 기업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센터가 되고자 합니다." IB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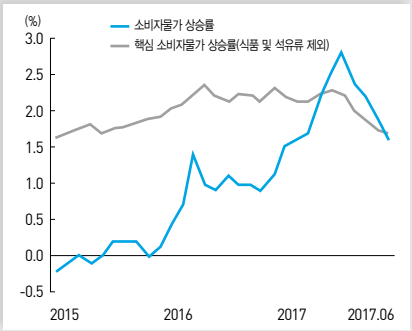
editor_ 강한기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국가별 경제 동향

미국

소비자물가



주 : 전년 동월 대비 **자료** : 미국 노동통계청

6월 엇갈린 경제지표, 경기회복세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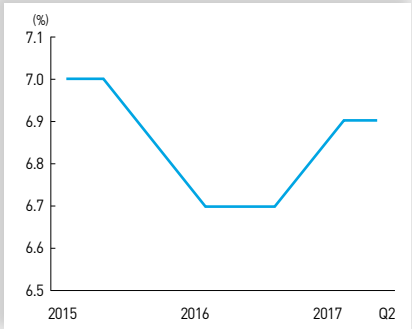
6월 소매 판매는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며 주춤했고, 소비자물가도 4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면 미국 원유 생산 증가로 광업 등 산업 생산이 증가했고, 고용 시장도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 명을 상회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옐런 연준 의장, 하반기 청문회에서 점진적 금리 인상 강조

옐런 연준 의장은 하반기 청문회에서 ①완만한 경제성장 ②연내 연준 자산 축소 개시 ③점진적 금리 인상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인플레이션 둔화를 일시적 요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며 6월 FOMC 회의보다 물가 부진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시장에서는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현재 점도표 수준보다 완만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

경제성장률



주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2/4분기 경제성장률 6.9% 기록, 상반기 6.9%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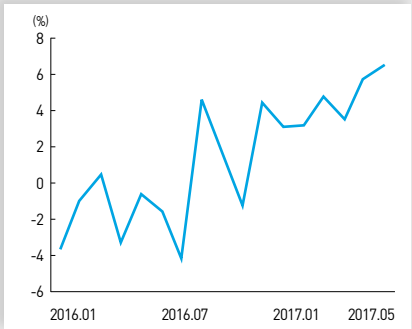
상반기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기업 이익이 개선되며 제조업 생산(7.4%)이 크게 증가했고, 견조한 소비 증가로 서비스 생산(7.7%)도 성장세를 지속했다. 반면 하반기는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에 이어 국유 기업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6.6~6.7% 정도로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홍콩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채권퉁(債券通) 시행

7월 3일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은행 간 채권 시장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채권통이 시행되었다. 주식 시장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沪港通), 선강퉁(深港通), 이어 채권 시장까지 개방의 문을 넓힌 것이다. 채권퉁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입이 증가해 위안화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본

산업생산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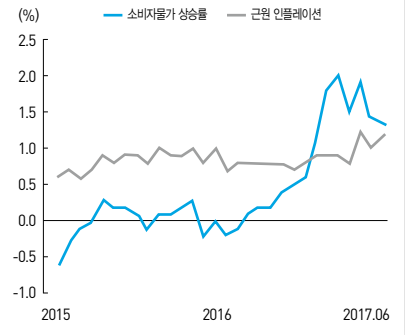
일본, 수출 및 생산을 중심으로 회복세 다소 뚜렷

글로벌 경기회복 및 작년 구마모토 지진(2016.04)에 따른 생산 중단의 기저 효과 등으로 5월 일본 수출은 자동차, 운송 기계 등을 중심으로 14.9%(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산업 생산의 경우 2014년 4월 이후 최고치인 6.5%를 기록하는 등 기업 경기 위주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아베 총리 지지율 급락, 위기감 확대

지난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은 기존 57석의 절반이 안 되는 23석 확보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아베의 사학 스캔들이 재조명되며 지지율이 31.9%까지 급락, 마지노선인 30%가 무너질 경우 퇴진론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의 도미노 탈당까지 우려되고 있어 회복세인 일본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 : 전년 동월 대비 **자료** : 유로 통계청

실물지표 개선 등 경기회복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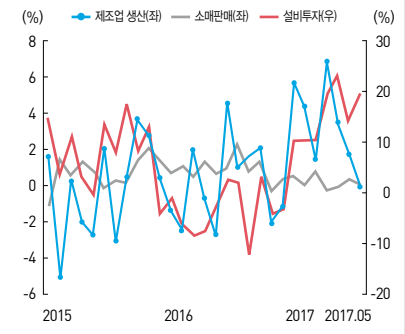
5월 산업 생산은 유로존 경기회복 기대감 상승과 기업 투자 증가 등에 기인한 내구재 및 자본재 생산 증가로 2011년 8월 이후 최고치인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를 보였다. 또 5월 소매 판매도 의류, 신발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해 개선세를 이어갔으며, 5월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9.3%로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상승 둔화로 전월(1.4%)보다 다소 낮은 1.3%를 기록했다.

ECB, 기존 통화정책 기조 유지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도 ECB는 통화정책 회의(7.20)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기준금리 0.0%, 예금금리 -0.4%, 한계대출금리 0.25%)하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2017년 12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발표했다. 또 유로존 경제 상황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로존

산업생산



주 : 전년 동월 대비 **자료** : 통계청

수출·투자 중심의 성장세를 보이나 소비·생산은 아직 회복세가 미흡

5월 제조업 생산은 기계 장비(20.8%), 전자부품(8.2%) 등이 늘었지만, 기타 운송 장비(-22.4%) 등에서 줄어 보합을 기록했다. 설비투자와 소매판매는 각각 19.5%, 1.6%가 증가했다.

고용·소득 등 질적인 측면은 아직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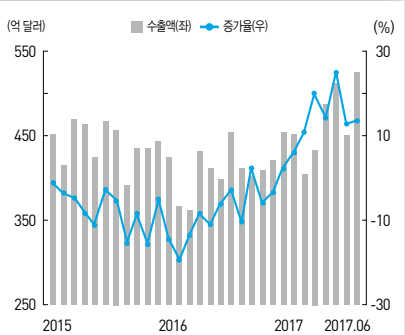
6월 고용률은 20년 만에 최고치인 61.4%를 기록했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동월 최고치인 10.5%로 확대되고, 청년 체감실업률도 23.4%를 기록해 4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 : 9.7('16.5)⇒11.3('17.3)→11.2(4)→9.3(5)→10.5(6)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16.4% 인상, 17년 만에 최대 폭). 이에 정부는 인건비 직접 지원(3조 원 내외), 전반적인 경영 여건 개선(1조 원+α) 등에 초점을 맞춘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했다.

※최저임금(원) : 4,110('10)⇒5,210('14)→6,030('16)→6,470('17)→7,530('18)

수출



주 : 전년 동월 대비 **자료** : 관세청

수출, 2014년 하반기 이후 최대 반기 수출 실적 기록

6월 수출은 역대 2위 수출 실적(514억 달러)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했다. 상반기 수출도 세계 경기·교역 회복, 반도체 등 IT 경기 호조, 유가 상승 등으로 15.8%를 기록했다. 또 유가 상승,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 등의 상승으로 수출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13.6%)했고 수출 물량도 1년 만에 증가로 전환(2.0%)했다.

※수출 단가(전년 동기 대비, %) : -11.2('16.상) → -0.1('16.하) → 13.6('17.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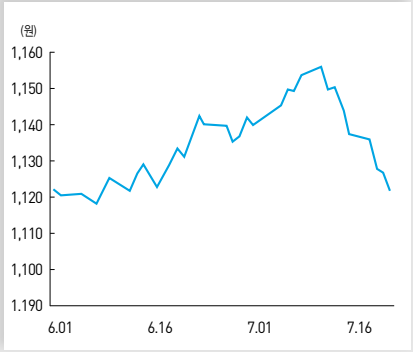
※수출 물량(전년 동기 대비, %) : 1.2('16.상) → -1.5('16.하) → 2.0('17.상)

지역별로는 미국(-1.1%)은 감소했지만, EU(21.0%), 중국(5.1%), 일본(10.4%) 등의 지역에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5.3%), 석유 제품(6.5%), 철강 제품(3.5%) 등이 증가했다. 이는 주력 품목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시장 다변화 진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증가 전환, 온라인 수출 급증 등으로 수출 품목·시장·주체·방식 등 수출 구조가 개선되면서 회복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환율 전망

원/달러 환율 동향



주 : 매매기준율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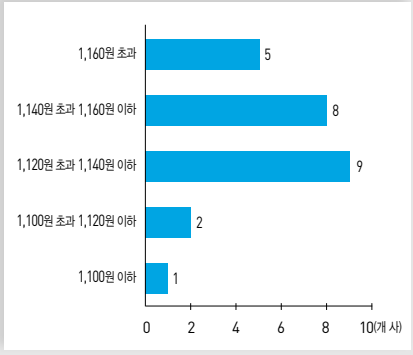
7월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 후 하락

원/달러 환율은 6월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경계감 및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상승해 7월 초 1,150원대에 진입했으나,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1,120원대로 하락했다.

8월 원/달러 환율은 1,110~1,140원의 박스권 움직임 예상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2.8%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코스피도 2,400선을 웃도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견조한 유입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 다만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연저점에 머무는 등 저점 인식에 따른 매수 심리는 환율 하락을 제한할 전망이다.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유가의 향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IB 환율 전망



주 : 2017년 3/4분기 말 자료 : 블룸버그

2017년 3/4분기 말 환율 전망은 1,149원

해외 주요 투자은행의 2017년 3/4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은 평균 1,149원으로 조사됐다. 블룸버그에서 실시하는 환율 전망에 응답한 주요 IB 25개 사의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3/4분기 말 원/달러 환율을 1,120원 초과 1,140원 이하로 전망한 IB가 9개 사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의 최저값은 1,090원, 최고값은 1,23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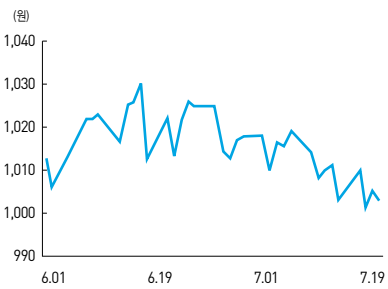
※환율 전망 응답 시기 : '17.7.1~7.19

2017년 4/4분기 말 환율 전망은 1,160원

2017년 4/4분기 말 환율에 대해 주요 IB들은 1,160원을 전망했다. 환율 전망치의 최저 값은 1,080원, 최고 값은 1,26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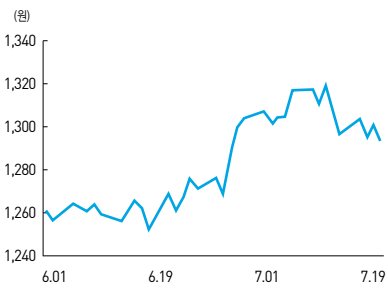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

원/100엔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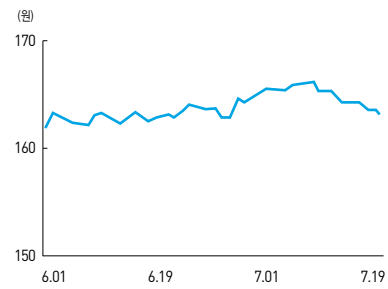
주 :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원/유로 환율 동향



주 :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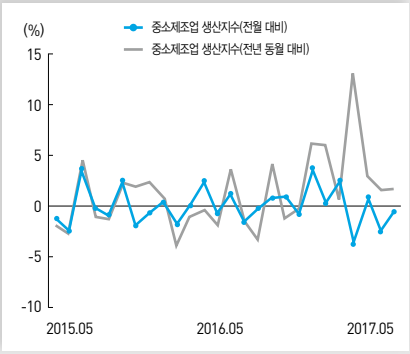
원/위안 환율 동향



주 : 매매기준율 자료 : 한국은행

중소제조업 동향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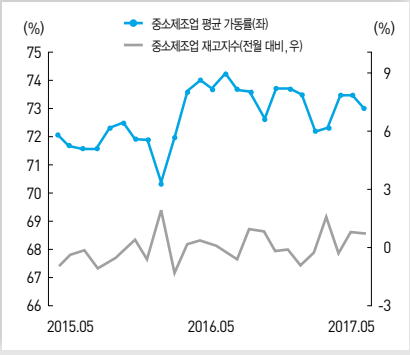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생산, 전월 대비 하락

2017년 5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5%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했다. 중소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로는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전월 대비로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생산 회복세가 소폭 조정되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반도체(9.1%), 전자부품(4.7%) 등에서 증가했지만, 통신·방송장비(-18.2%), 자동차(-1.9%) 등에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기계장비(20.8%), 전자부품(8.2%) 등에서 증가했으나, 기타운송장비(-22.4%), 금속가공(-9.9%)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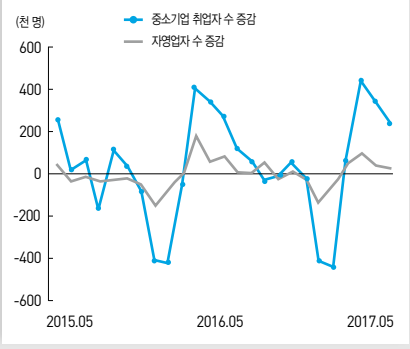
2017년 5월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소기업(5~49인) 및 중기업(50~299인)에서 각각 0.4%p, 0.7%p 하락하며 전체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0.5%p 하락한 73.0%로 나타났다.

재고, 전월 대비 소폭 증가

2017년 5월 중소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반도체(13.6%), 화학제품(4.0%) 등에서 증가했으나, 식료품(-2.6%), 전자부품(-2.5%)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고용



자료 : 통계청

취업자 수, 전월 대비 증가

2017년 5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월에 비해 23만 5,000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가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11만 7,000명이 증가했으며,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는 전월 대비 11만 8,000명이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는 2,435만 1,00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월 대비 증가

2017년 5월 자영업자 수는 전월 대비 2만 7,000명이 증가해 568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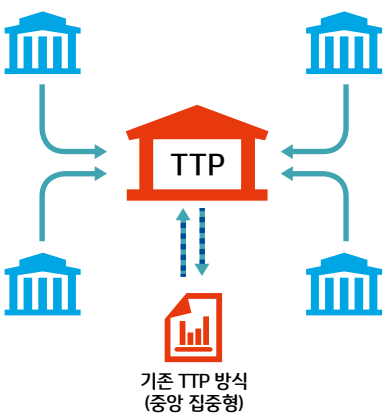
블록체인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프린팅, 5G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로 언급되고 있다(다보스포럼, UN 미래보고서). 최근 디지털 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를 논할 때도 반드시 함께 언급되며, 심지어 제2의 인터넷 정도로 파워풀하다고 평가하는 기관도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등과 달리 블록체인은 아직 눈에 보이거나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블록체인의 원리와 사례를 들어본다.

블록체인, 누구냐 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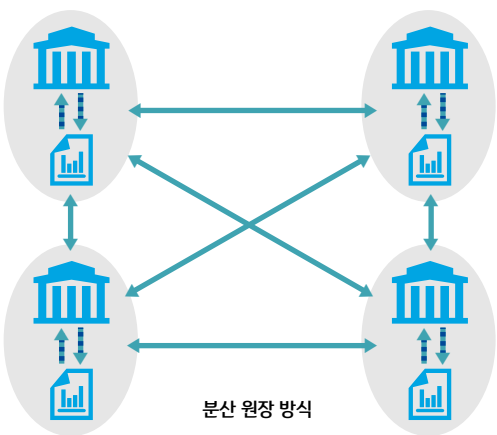
블록체인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최근 가상 화폐의 가치와 거래가 급증하면서 언론, 인터넷을 통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는 단어는 한 번 정도 접해보았을 것이다. 이런 가상 화폐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정보를 특정 기관에서 관리하는 대신 P2P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저장·관리하는 분산 장부(Distributed Ledger) 기술로 정의한다.

중앙 집중형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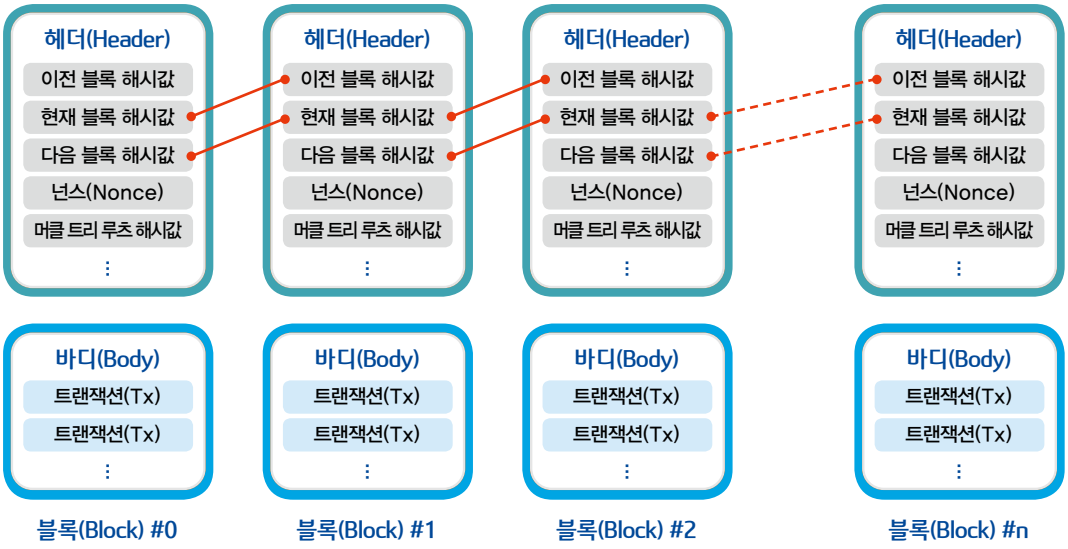


P2P 네트워크 분산 시스템



자료 : 한국은행

블록체인 연결구조



자료 : 한국은행

실시간 생성되는 데이터를 블록에 저장하고, 이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는 게 블록체인이다.

정보가 기록되는 블록은 헤더와 바디로 구성되는데, 헤더는 과거와 현재의 해시값(문자열로 표현된 키), 넌스(Nonce) 등을 포함하며, 바디는 각 트랜잭션 값을 저장한다. 블록을 검색하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인덱스를 찾는 방식으로 값을 찾는다.

블록체인의 특징

블록체인은 참여자 간 정보를 공동으로 소유하므로, 해커가 참여자의 모든 정보를 조작하기 어려워 보안성이 우수하다는 게 특징이다. 또 분산구조이므로 소수 참여자의 시스템이 정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과반 이상의 참여자 허가가 필요하므로 신뢰성도 높다.

또 당사자끼리는 다이렉트 거래가 가능해 효율적이다. 반면 중앙 기관이 없으므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익명성 때문에 불법 자금이 세탁될 우려가 있으며, 잘못된 거래의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블록체인의 유형

❶ 퍼블릭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은 공개형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완벽한 분산형 구조로 중앙 제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반면 네트워크 확장성과 속도가 느린 것이 단점이다.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곳이 가상 화폐 중 규모가 가장 큰 비트코인이다.

❷ 프라이빗 블록체인

하나의 관리자에게 블록체인을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따라서 사용자 식별이 용이하고 거래 속도도 빠르며 네트워크 확장성도 용이한 반면, 비공개형이므로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중앙 기관인 정부나 거래소 등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나스닥의 비상장 주식거래소 플랫폼인 링크(Linq)에서 일부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❸ 컨소시엄 블록체인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중간 형태로 미리 선정한 참여자들에 대해서만 분산형 블록체인 시스템을 공유하는 구조로, 제한된 참여에 따른 보안을 강화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의 느린 속도 등의 단점을 보안한 시스템이다. 전 세계 주요 은행(국내 5개 은행 포함)이 참여하는 R3CEV에서 대표적으로 추진 중이다.

일본의 캡슐형 호텔 신주쿠 에키마에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직원이 비트코인 결제를 시연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활용, 가상 화폐

**"A가 B에게 10만 원 대신 가상 화폐 3코인을 송금해줬는데, 이 코인은 보증해주는 기관이 없다.
B 입장에서는 코인에 대한 가치, 위조 여부, 활용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코인을 10만 원 대신으로 여길 수 있을까?"**

가상 화폐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이유는 보증 기관 없이 이뤄지는 화폐 유통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즉, 일반적인 통화는 각 국가에서 가치를 인정해주고, 잔고와 거래 기록을 은행에서 보증해주기 때문에 화폐의 사용과 가치에 대한 증명이 불필요하다. 반면 가상 화폐는 가치를 보증해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거래 기록과 잔고에 대한

보증이 일반 화폐보다 더 중요하다.

위 사례에서 가상 화폐가 블록체인의 기반이 되면, B 입장에서 3코인에 대한 과거 소유자 및 거래 기록을 모두 볼 수 있고, 기록의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해 가치가 입증되기 때문에 B는 현금 대신 3코인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상 화폐는 거래에 필요한 개인 키가 해킹당했을 경우, 코인의 탈취를 막을 수 없고, 중앙 기관 부재로 거래를 강제로 중지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렇듯 가상 화폐 생태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필수적이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 약 1,000종류의 가상 화폐가 생겼고, 이 중 거래량의 90%를 차지하는 것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다.

온라인에서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암호화된 문제를 풀어 그 보상으로 코인을 획득하는데, 총 유통 화폐량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유통량이 많아질수록 코인을 채굴하는 난도가 높아져 채굴 속도가 떨어지는 게 이들의 구조다.

소유자가 개인 키를 입력해야 송금이 이루어지고 네트워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승인하면 거래가 성립된다. 또 과반수가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블록을 조작하거나 이중 거래(지불된 통화를 다시 사용하거나 회수해 이중으로 화폐를 획득하는 행위)에 대한 위협은 거의 없다.

하지만 가상 화폐에 블록체인이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보안성이 완벽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 가상 화폐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 블록체인 구조를 파괴하는 등의 방법은 어렵지만, 개별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코인에 대한 해킹은 다른 문제다. 블록체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에 필요한 개인 키가 해킹당했을 경우, 코인의 탈취를 막을 수 없고, 중앙 기관 부재로 거래를 강제로 중지시킬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의 미래

블록체인은 현재 가상 화폐 정도에 활용이 국한되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리 측면에서 보면 혁신적인 기술이다. 데이터 위·변조가 어렵다는 장점과 분산 저장 특성을 살려 차세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소지가 있다.

또 이를 활용해 신용 평가, 담보 계약서·수출입 신용장 위조 확인,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활용 방안도 나올 것이다. 다만, 아직 태동한 지 얼마 안 된 기술이므로 다양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IBK



writer_ 박강희
IBK경제연구소
경영연구팀 연구위원
공학 박사. 은행 경영 현안 및 전략, 기업 고객 이슈 분석, 핀테크 및 빅데이터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의 틀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기존 산업의 쇠퇴 혹은 몰락이라는 현실 앞에서 당황하고 방황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열심히 움직이는 기업들로 분주하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새로이 재편되는 기업 환경

4차 산업혁명은 산업 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대기업을 분해(Disintegration of Bigs)하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재통합(Reintegration of Smalls)하게 된다. 대기업의 분해는 기존 거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업무가 효율성을 잃고, 이를 대체하는 중소기업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고, 중소기업의 재통합은 각 분야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수행하던 기능을 대체하면서 분야별 강자로 부상하며, 이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등장하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통합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재통합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플랫폼에 프로세스로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PaaS(Process as a Service)라고 부른다. 현재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지난 6월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김상조 위원장.

핀테크나 EMS(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 같은 형태의 산업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 간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된다.

이처럼 다양한 기업이 플랫폼으로 묶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율성과 분권적 거버넌스가 기업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율성과 분권이라는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해낼 방법은 건강한 산업 생태계의 존재 혹은 육성이다.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공정한 경쟁이나 공정거래다. 공정한 경쟁은 한국 사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혹은 상생협력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왔다. 동반성장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 경제 주체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 생산성과 창의성이 축을 이루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라고 정의된다(이장우, '한국형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중소기업연구, 2011). 한국 사회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 동반성장 노력을 기울여온 게 벌써 10여 년이 넘었다.

경제성장의 걸림돌, 불공정거래

하지만 정부와 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에도 여전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늘어날수록 시장의 효율성은 하락하고, 혁신이 지체되며, 거래 이익이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이 아닌 대기업에 돌아감으로써 시장에서 불평등이 확대되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새롭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김상조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거래와 대기업 집단의 거버넌스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놓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은 본질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형태를 바꾸어놓을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의 틀 또한 기존 산업구조하에서 용인되던 형태에서 상당 부분 바뀌어야 한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이를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와 특수 불공정거래 행위**로 대별될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크게 경쟁 제한성이라는 위법성 판단 기준과 불공정성이라는 위법성 판단 기준에 의해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은 주로 경쟁 제한성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데 반해,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불공정성에도 상당한 무게를 두어 규제하고 있다

*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를 9개로 유형화(①거래 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경쟁 사업자 배제, ④부당한 고객 유인, ⑤거래 강제, ⑥거래상 지위 남용, ⑦구속조건부 거래, ⑧사업 활동 방해, ⑨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해 규정하고 있다.

**

특수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거래법 이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대표적 행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홍명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2015).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직권 조사나 서면 실태 조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술자료임치제도,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통계 연보를 보면, 1981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은 불공정성을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하는 거래 행위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거래를 규율하는 하도급법에 의해 규제되는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 건수가 2만 5,805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업 간 거래에서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경고와 시정 명령이 대부분으로 사법적 처벌은 전체의 약 1.5%, 과징금 조치가 약 4.5%로 실질적인 처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경쟁 제한성과 불공정성, 두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어느 한 측면에서 규제하는 데 따른 규제 체계의 정합성 부족(권오승, '시지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합리화 연구', 아시아경쟁연합 공정위 보고서, 2015),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열거주의 규제 방식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남용 행위 발생 시 탄력적인 법 적용의 한계, 거래상 불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규제의 일관성 부족 때문에 나타난다.

시장 스스로 작동하는 체계 만들어야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제 발전을 위해 꼭 과제인 필요한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규율은 법률 규정상 모호함이나 집행상의 모호함 때문에 행정처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처분 중심의 법 집행은 장점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장 친화적인 접근도 아니고 집행 효율성을 담보할 수도 없다. 시장 친화적 접근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현재의 열거주의 규제 방식을 포괄주의 규제 방식으로 바꾸고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열거한 후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반드시 처벌하는 반면 나머지 행위는 사적 구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하도급법에서는 규제 방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시장이 작동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강력한 인센티브(우수 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실태 조사 면제, 법 위반 시 제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시장 친화적 대안

1.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
2. 하도급 표준 계약서 강제 사용
3.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시 감독 체계 구축
4. 단체 협약 활성화

재 수준의 감경, 혹은 세제상의 혜택 등)를 제공해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 규제의 개념을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거래상 불이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거래 내용이나 경쟁 수단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거래상 불이익 측면에서 규정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시장 친화적 접근 방식은 규제 틀의 개념적 변화 이외에 거래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는 대기업과 하청업체 협동조합이나 하청업체 협회 등이 계약을 하게 하거나 표준 계약서를 활용해 보다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이의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해 규정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집행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해야 한다.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시장 친화적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중 기술 자료나 원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불법화하고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물품 구입자가 검증과 평가 책임을 진다. 따라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이나 부품을 구입할 경우 스스로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되는 하도급 표준 계약서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계의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시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고발권을 중립적인 제3 기구에 이관하는 동시에, 이 기구의 의사 결정권을 정부 유관 기관과 관련 중소기업 단체 및 협동조합, 관련 노동조합과 공익성을 띠는 민간 전문가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단체협약을 활성화해야 한다. 원·하청 간 불평등한 교섭력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청사업자협회나 협동조합 등이 공동으로 거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지원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시스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거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거래자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해 규정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집행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시장 지위의 차이로 표면화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파악되지 못해 행정 처분 수준에서 조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IBK



writer_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 사무총장,
스마트핀테크연구소장,
IT서비스관리포럼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서비스베이션: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모델 혁신 전략〉, 〈협동조합 성공과 실패의 비밀〉(공저) 등의 저서가 있다.

50
중소기업
CEO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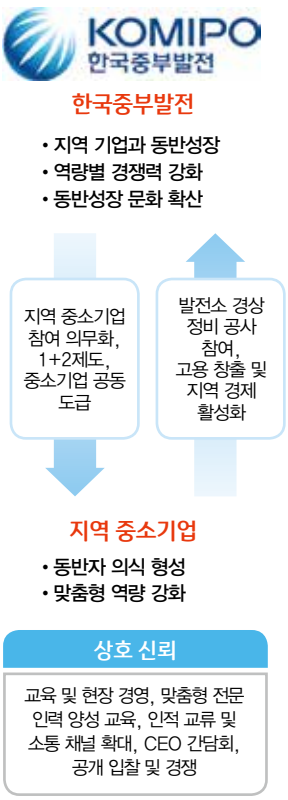
생태계 기반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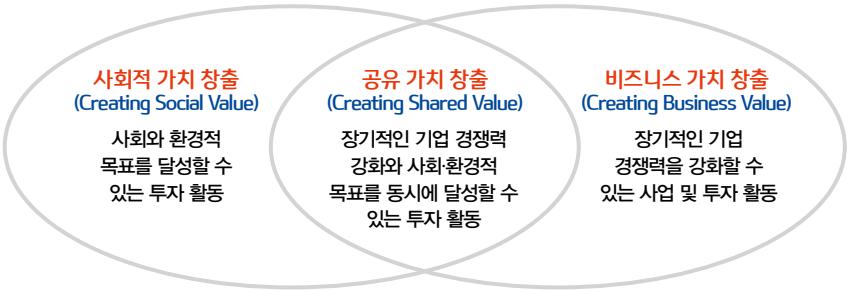
한국중부발전과 지역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 가치 창출

대기업 혹은 공기업은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식의 협업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 한국중부발전은 공기업 최초로 '발전소 정비 지역 기업의무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상호 신뢰 기반 동반자 의식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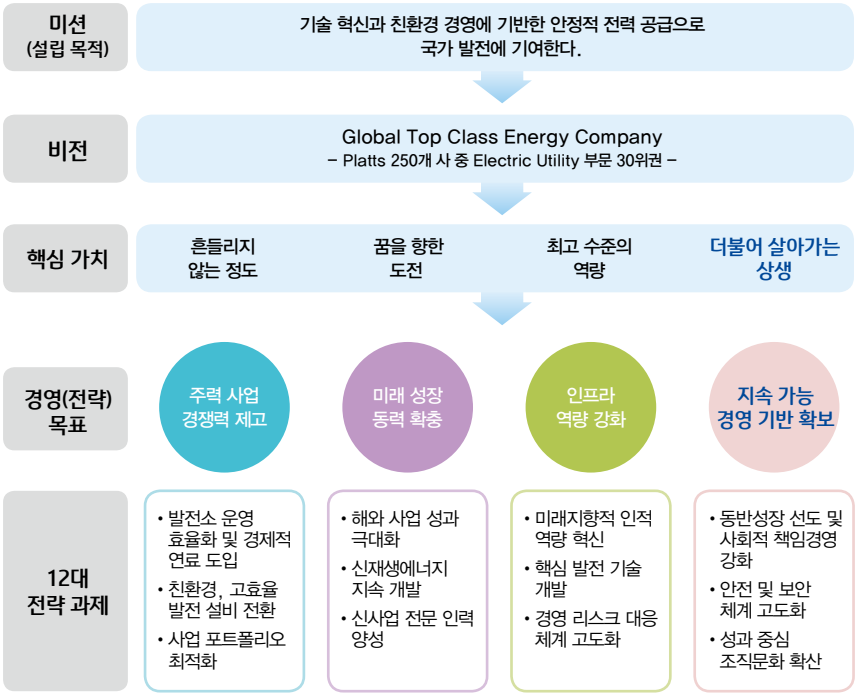
공기업의 책무와 공유 가치 창출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정된 많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이 있다. 이들 공기업은 공공 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기업으로서의 수익성을 함께 도모하는, 이른바 균형 잡힌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의 책무는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공유 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과 그 철학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CSV는 2001년 마이클 포터가 새롭게 제시한 개념이다. CSV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의 문제점, 즉 기업의 핵심 사업 영역과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다 보니 예산 규모에 따라 제한적이고, 특히 해당 활동의 지속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CSV는 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이용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모두 추구함으로써 기업과 공동체가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중부발전의 비전 2030



자료 : 한국중부발전 홈페이지

한국중부발전의 상생협력 체계

한국중부발전은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공기업으로, 핵심 발전소인 보령화력을 비롯해 인천화력, 서울화력, 서천화력, 제주화력 등 839.8만kW의 발전 설비를 보유, 운영 중이며, 2015년에 보령시로 본사를 이전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공기업(Global Top Class Energy Company)'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경영 전략인 비전 2030을 선포했다. 핵심 가치, 전략 목표, 전략 과제 차원에서 상생협력 체계로 정렬(Align)해 2030 동반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맞춤형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동반성장 문화 확산', '판로 확대 및 R&D 지원 확대'라는 동반성장 추진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 방안 및 가치 창출 방안 등을 수립할 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석 틀이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Value Chain)이다. 한국중부발전이 중소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만한 분야가 많은데,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의 경상 정비 분야에서 2015년부터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가치 사슬을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으로 구분했을 때 발전소의 핵심적·본원적 활동인 발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적 활동에서 발전소의 경상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한국중부발전도 2015년 이전까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발전, 설비, 경상 정비 공사와 연료, 환경, 설비, 위탁, 운전 용역의 대부분을 대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진행해왔다. 이러한 수의계약 방식은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에는 불만을 초래했고, 한국중부발전에는 높은 낙찰가율로 인한 예산 절감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2015년에 보령시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지역 기업과의 협업, 지역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었다. 한국중부발전은 발전 공기업 최초로 '발전소 정비 지역 기업의무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는데, 2018년까지 전면 경쟁 체제를 목표로 2015년부터 대기업 1개 사와 중소기업 2개 사 공동 컨소시엄 구성의 의무화, 중소기업 공동 도급 등을 통해 단계적 경쟁을 도입했다.

동반성장의 필요조건, 상호 신뢰와 동반자 의식

경상 정비와 관련된 제도를 변경해 지역 중소기업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대·중소기업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성공적이고 발전적인 상호 협력 관계, 즉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국중부발전이 발전소 정비 지역 기업의무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하면서 특히 노력한 것은 쌍방향 소통과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통한 상호 신뢰, 동반자 의식 형성이었다.

발전소별로 경상 정비 현황 설명회와 지역 중소기업 초청 의견 수렴 간담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쌍방 간의 소통을 강화했고, 경상 정비 참가 기업의 현장 경영과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CEO 간담회 등 지역 중소기업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기업이 지역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보여주기식의 제도 개선을 통한 동반성장이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상호 신뢰 기반의 동반자 의식을 형성하고자 했다.

지역 중소기업은 경상 정비 공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매출이 증가되었고(2015년 총 266억 원), 대부분의 지역 중소기업은 하도급 체계에서 직접 계약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 증대도 이룰 수 있었다. 나아가 대기업의 하도업체가 아닌 공





위_ 경상 정비 참여 기업 및 희망 중소기업 간담회
아래_ 경상 정비 중소기업 대상 발전 설비 교육

자료 : 생태계 기반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례와 모델

동 수급 방식으로 대기업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또한 상승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생산성 향상과 지역 고용 창출(83명)의 긍정적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냈다. 한국중부발전 또한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해 예산 절감뿐 아니라 안정적 공급과 품질 개선, 민원 감소, 고객 만족 증가,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 인식 제고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 가치 창출

한국중부발전의 경상정비공사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은 시장의 재구성, 가치 사슬의 생산성 재정의, 지역 클러스터 개발이라는 공유 가치 창출 유형과 맥을 같이한다.

첫째,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과감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장을 재구성해 공유 가치를 창출했다. 기존 계약업체인 대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 체계로 전환하고, 사전 심사 기준을 개선해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불리한 점을 해소함으로써 경상 정비 시장을 재편해 협력 기업과 가치를 창출했다. 둘째, 발전소의 경상 정비 분야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해 가치 사슬상의 생산성을 재정의함으로써 공유 가치를 창출했다. 우선 협력업체 직원의 발전 설비 기능과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 기업의 기술 능력을 제고해 지역 중소기업의 정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 증대를 이루어내 한국중부발전과 협력 기업의 가치를 창출했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 클러스터를 개발해 가치를 창출했다. 경상 정비 분야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매출과 수익 증대, 고용 창출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기업 이미지 개선, 지역 기업 성장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나아가 지역 기업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반성장을 선도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공헌했다.

최근 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CSV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CSV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한국중부발전의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 가치 창출 사례가 보다 다양하고 발전된 형태의 공유 가치 창출 사례와 모델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IBK



writer_ 강명수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경영학 박사.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중소기업학회 상임이사이자 ICSB-Korea 부사무총장이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가? 앞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시 한 줄을 장식하기 위하여
꿈을 꾼 것이 아니다.
내가 월든 호수에 사는 것보다
신과 천국에 더 가까이 갈 수는 없다.
나는 나의 호수의 돌 깔린 기슭이며
그 위를 스쳐 가는 산들바람이다.
내 손바닥에는
호수의 물과 모래가 담겨 있으며,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내 생각 드높은 곳에 떠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객기인가, 용기인가

뉴욕의 잘나가는 홍보 회사에 다니던 리처드는 사직서를 내고 미국 서부 해안의 한 작은 어촌으로 이주한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가진 것이라곤 밴 한 대, 옷가지, 타자기, 레코드, 턴테이블, 사전, 책 몇 권, 그리고 20달러짜리로 채운 구두 상자 하나가 전부였다. 아내와도 이혼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넘겨주고 나자, 자신이 얻은 것은 '자유'였다. 사표를 낼 때 친구들은 그를 만류했다. 언젠가 아내에게 넘겨준 돈이 그리울 때가 있을 거라며. 어떤 친구는 '엄청나게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그를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자신의 시간이 왔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여태껏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로 떠날 눈부신 날이.

그가 어촌에서 정착해 하는 일은 비치코밍(Beachcombing)이다. 비치코밍이란 해변에 흩어져 있는 표류물을 줍는 일이다. 아침마다 모래톱을 걸으며 밤새 파도에 떠밀려온 물건들은 그의 훌륭한 생활용품으로 재활용된다. 목이 가는 유리병은 화분, 티크로 짠 상자는 턴테이블과 레코드판을 위한 선반, 난파한 배에서 떨어져 나온 돛은 아름다운 햇빛 가리개가 되었다. 잡다한 유품들, 문명의 파편을 주우며 그는 '마치 바다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뛰어다니지 않는다. 걸음을 재촉하지도 않는다. 맥박을 높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 체중을 줄이거나 심폐 기능을 높이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그림자를 보려고 이곳에 왔다. 머리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때론 짧아지고 때론 길어지는 그림자를 살피는 것이다.

_리처드 보드, 〈넓고 넓은 바닷가에〉

자신의 그림자를 보려고 탄탄한 직장과 가족들을 버리고 비린내 나는 촌구석으로 왔다면 당신은 그를 이해하겠는가. 단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다니던 증권사를 그만두고 타히티섬으로 내뺀 고갱의 행동을 당신은 용기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버드를 졸업하고도 세속적인 성공을 등지고 월든 호숫가에서 통나무집을 짓고 살았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당신은 과연 존경할 수 있는가. 반대로 그들은 아등바등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것이다. 오늘 당신의 머리 위로 눈부시게 떠오른 태양을 본 적이 있느냐고. 파도에 쓸려 바닷가로 밀려 나온 소라의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몸으로 바람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고.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던진 수수께끼의 의미를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지금이라도 훌쩍,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다른 삶을 찾아 떠나고 싶지만, 마음일 뿐, 다음 날 아침이면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가 탈출하고 싶었던 그곳을 향해 현관문을 나선다.

누군가 우리에게 "자유롭고 싶지 않으세요?"라고 물으면 내심 반기면서도 곧 표정이 굳을 것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 특히 가장으로서, CEO로서의 특권은 책임과 의무라는 족쇄에 묶여 있으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어쩌면 그 특권은 '평생 자유 없음'에 대한 대가인지도 모른다.

시간의 연속성은 계속될 것인가

자유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의지와 열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야 한다. 외부의 요구에 의한 것은 자유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지와 열정의 출구를 찾기 위해 대상을 물색한다. 값비싼 오디오를 사들이는가 하면,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애지중지하거나, 등산, 낚시, 골프에 빠진다. 사진 동호회를 열심히 쫓아다니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늦게라도 자신을 발견하고 싶은 것이다. 그나마 1년 중 자유를 찾아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을 때가 휴가철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자유롭지 않다.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때 엄마 품에서 쌔근대며 잠을 자던 아기도 중년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 노인이 될 것이다. 모래시계에 모래가 빠지듯 세월은 빨리도 흐른다. 자유에 대한 출구를 찾기도 전에 어쩌면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서두를 일은 아니다. 어서 빨리 자유를 찾아 숲속으로 은둔하거나 바닷가에 가서 잡다한 물건을 줍고 다니라는 말도 아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고귀하다. 지갑이나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당장 어떻게든 구해보려 하면서 부족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무딘하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밤이 가면 아침이 올 것이고 하루가 가면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 시간의 연속성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렇게 살 일이 아니다. 하루하루 소중하고 값지게 살아야 한다. 자유란 이러한 토대 위에 맛볼 수 있는 기쁨이다. 자, 이번 휴가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누구랑 가든지 간에 세상의 모래톱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주워 오자. 그곳에서 잊고 지냈던 나의 자화상을 들여다보자.

IBK



writer_ 이현숙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팀장
〈사장의 인문학〉, 〈마흔, 두 번째 스무 살을 준비하다〉, 〈낯섦〉 저자. 매일 배우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은행원이다.

Drama

미래를 담은 드라마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면…. 누구나 꾸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다. 하지만 드라마를 통해서라면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진다. 과연 드라마 속 미래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1


2



3

1 웨스트월드

많은 사람이 내년 시즌 3 공개를 목 빼고 기다리는 '최근 가장 핫한' 미드다. 율 브리너가 주연을 맡은 1973년의 동명 영화를 훨씬 풍성하게 만들었다. 영화 〈웨스트월드〉는 소설가 마이클 크라이턴이 직접 자신의 소설을 각색하고 감독한 작품이다. 〈쥬라기 공원〉, 〈콩고〉, 〈라이징 선〉 등의 영화와 의학 드라마 〈ER〉의 원작자이기도 한 크라이턴은 첨단 과학이 가져오는 미래의 위험성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웨스트월드〉도 다르지 않다. 웨스트월드는 서부 시대를 재현한 놀이동산으로, 사람과 똑같이 생긴 안드로이드들이 사람처럼 생활하는 공간이다. 방문객은 안드로이드를 쏴서 죽이거나 하룻밤 사랑을 맺으면서 모험을 즐긴다.

드라마 속 미래상은? '호스트'라고 불리는 안드로이드의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에 도달한다. 인간보다 인간적인 AI, AI보다 인간적이지 못한 인간이 충돌을 일으킨다. 사람보다 늦게 총을 뽑도록 설계된 호스트들이 사람보다 빨리 총을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각성한다면? 총에 맞아 죽기 위해 태어났다는 운명을 거부하려 든다면?

2 컨티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방송한 캐나다의 SF 드라마. 2077년 미국과 캐나다의 후신인 북미연합은 기업 의회의 지배를 받는다. 기업의 독재에 반대하는 해방전선 소속 테러리스트 8명이 처형대에 오른다. 처형 직전 2010년대로 타임 슬립하는 이들의 탈주극에, 강력계 여성 형사인 키에라가 휘말려 든다. 과연 그녀는 현대에서 탈주범을 체포해 가족이 기다리는 2077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반민주적인 기업 의회와 인명 살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테러리스트 집단 가운데 어느 한쪽도 선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흥미롭다. 첨단 기술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SF 드라마이기도 하다.

드라마 속 미래상은? 2077년의 키에라는 범인을 제압하면 체포하는 대신 약물을 주사한다. 자진 출두하지 않을 경우 극심한 고통을 주는 약물이다. 또 그녀의 의상(좀 진부한 쫄쫄이 형태다!)은 방탄이나 변신, 고압 전기 방출 등의 특수 기능을 지원한다. 사람의 기억을 파일처럼 녹화하고 전송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3 라스트쉽

미래는 현실과 단절된 특정 시대가 아니라 오늘이 연장되어 만들어진 내일이다. 〈라스트쉽〉은 바로 내일이라도 찾아올 수 있는 '현재적인 미래'를 그린다. 미국의 바이러스학자가 이집트에서 발견된 강력한 바이러스의 샘플을 채취한 후 미군 함선을 타고 북극으로 떠난다. 4개월간 극지방에서 해당 바이러스의 원형을 찾기 위해서다. 그 사이 이집트발 바이러스는 지구를 떠돌며 인류의 80~90%를 죽였다. 기능을 상실한 국가들은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함선 등의 통제력도 상실한다. 미군과 학자는 바다 위를 떠돌며 백신 개발에 나서고, 러시아의 전 해군 제독은 이를 탈취하려 한다.

드라마 속 미래상은? <웨스트월드>나 <컨티넘>과 달리 <라스트쉽>은 첨단 과학기술이 활개 치는 미래상을 보여주진 않는다. 하지만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 지구 차원의 글로벌 판데믹(초대형 유행병)이 어떤 위력으로 다가올지 알려준다. 또 그 안에서 이익 다툼을 벌이는 인간의 추함도 잘 보여준다.

editor_ 김은희

떠나지 않아도 낯선 곳으로 Music

뜨거운 여름이다. 굳이 떠나지 않아도 떠난 것 같은 이국적인 음반 3장을 소개한다.

1 아르헨타 <에스파냐>

Argenta <España>

샤브리에의 '에스파냐'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스페인 기상곡' 두 곡은 1950년대의 이 음반을 능가할 연주를 찾기 힘들다. 런던 심포니가 연주하는 아르헨타는 커다란 팔레트와 캔버스 위에 화려한 색채감을 아로새긴다. 그라나도스의 '안달루시아', 모슈코프스키의 '스페인 춤곡 1권' 등도 이베리아 반도 저편의 붉은 노을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다.

Point_ 플라멩코 댄서의 검붉은 춤!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다. 오디오 파일용 녹음으로 좋은 음질을 자랑한다. 스페인의 위대한 거장 지휘자 아타울포 아르헨타의 경이롭고 다채로운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2 다비드 오를로프스키 <노에마>

David Orlowskys Klezmorim <Noema>

모터를 장착한 클라리넷? 다비드 오를로프스키의 클라리넷은 제스로 툴의 이언 앤더슨이 학다리 주법으로 부는 플루트를 연상시킨다. 튀빙겐 출신의 오를로프스키는 10세부터 타악기를 연주하다가 클라리넷으로 전향했다. 오를로프스키의 클라리넷에 옌스 우베 포프의 기타와 플로리안 도어만의 더블베이스로 이루어진 기본 편성에 만돌린이나 반도네온, 오르간 등이 결합된 독특한 음악을 들려준다. 2016년 평창겨울음악제에서 이들의 연주를 직접 볼 수 있었다.

Point_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 마을로 듣는 이를 안내한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행사 및 댄스 음악인 클레즈머 음악을 들려준다. 서양 악기 연주지만 어쩐지 동양적이고 중동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흥겹고 풍자적인 댄스 뮤직인 듯하면서도 슬픔이 배어 있는 독특한 음악이다.

3 안탈 도라티/런던 심포니 리스트 <헝가리 랩소디>

Liszt Hungarian Rhapsodies No.1~6

'랩소디'는 고대 그리스의 짧은 서사시에서 유래했다. 19세기 들어서 민족적 색채가 강하거나 서사적인 자유 형식의 기악곡을 의미하게 되었다. '헝가리 랩소디'는 헝가리인 고유의 기질과 생활을 예리하게 표현한 곡으로, 리스트는 13세에 파리로 가기 이전까지 어린 시절의 고향이었던 헝가리를 떠올리며 이 곡을 썼다. 총 19곡으로 구성된 헝가리 랩소디 가운데 장중한 2번과 빠른 6번, '라코치 행진곡'이라 불리는 15번이 유명하다. 여기에는 1~6번이 수록됐다.

Point_ 헝가리 집시들이 버스킹하는 부다페스트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속도에 주목하자. 랩소디 6번에서는 처음과 마지막의 빠른 멜로디 부분이 일품이다. 헝가리 집시 춤곡인 '차르다시'에서 빠른 부분을 프리스카, 느린 부분을 라산이라고 하는데, 서주부에 이어 빠른 부분이 연주되다가 느리고 장중한 라산풍으로 옮겨가며 대비된다. 카덴차를 지나 조가 바뀌면서 빠르게 고조되다 절정에 이른다.



1



2



3



writer_ 류태형
음악 칼럼니스트
월간 〈객석〉 편집장과 〈중앙일보〉 음악 담당 객원기자를 역임했다.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August 2017

08

이달의 행사·전시

sunday	monday	tuesday
		1
6	7	8
13	14	15
20	21	22
27	28	29

KITAS
KOREA SMART DEVICE TRADE SHOW
THE 7th 2017
스마트 디바이스 쇼 2017

스마트 디바이스 쇼

국내 유일의 IT(정보 기술) 액세서리 주변기기 전시회인 '제7회 스마트 디바이스 쇼 2017'가 '퓨처 언리미티드(Future Unlimited, 무한한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모바일 액세서리, 컴퓨터 주변 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모빌리티, 드론, VR 디바이스, 인공지능 디바이스, 스마트카 디바이스,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3D 프린팅 등 전시 영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info. 8.10(목)~12(토), 서울 코엑스(COEX)
www.kitas.kr

로하스박람회

중소기업 발전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열리는 제주도 최대 규모의 로하스 박람회. 로하스박람회의 연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제꼭사(제주에 가면 꼭 사야 할 명품)'는 소비자 단체, 학계, 언론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선정한다.

info. 8.11(금)~1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www.lohasjeju.co.kr

제16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오래된 유기농 전문 박람회. 판로 개척과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info. 8.17(목)~19(토), 서울 코엑스(COEX)
www.organicshow.co.kr

CPhI Korea 2017

국내 제약 산업 성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대규모 전시회. 1:1 비즈니스 상담 행사, 참가 업체의 기술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리며, 수탁 서비스 전문 전시회 'ICSE', 제약 설비 전문 전시회 'P-MEC', 바이오 의약품 전문 전시회 'BioPh', 세계 건강 기능성 원료 전시회인 'Hi 2017'이 동시 개최된다.

info. 8.22(화)~24(목), 서울 코엑스(COEX)
cphikorea.co.kr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



올해로 10회를 맞는 스마트국토엑스포는 삶과 밀접한 공간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다.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증강현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와 함께 공간 정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비즈니스 섹션도 마련된다.

info. 8.30(수)~9.1(금), 서울 양재 aT센터
smartgeoexpo.kr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	3	4	5
9	10	11	12
	스마트 디바이스 쇼		
		로하스박람회	
16	17	18	19
	제16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23	24	25	26
CPhI Korea 2017			
30	31	9/1	9/2
	2017 스마트국토엑스포		
	2017 창원국제자동차부품산업박람회		
	제9회 아템페어전시회		

2017 창원국제자동차부품산업박람회



전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집적 단지인 창원에서 개최되는 대체 부품 및 A/S 부품 전문 전시회. 경남의 자동차 산업 육성과 트렌드 선도를 목적으로 열리며 10개국 80개 사가 참여해 OEM 부품 및 소재, 완성차, 전기차, 수소차, 외장 부품, 등화 부품, 기능성·소모성 부품, 정비 기기 및 검사 장비 등을 선보인다.

info. 8.30(수)~9.1(금), 창원컨벤션센터, www.automotiveshow.kr

제9회 아템페어전시회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은 물론 미래 첨단 산업인 에너지, 우주 항공, 나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접착·코팅·필름, 표면 처리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전시회. 지난 2008년 제1회 행사를 개최한 후 접착 및 코팅 관련 제품과 기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미래 접착 코팅 기술 세미나, 첨단 신소재 홍보관, 애로 기술 컨설팅, 참가 업체 신제품 발표회 등의 부대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info. 8.30(수)~9.1(금), 일산 킨텍스(KINTEX), www.atemfair.kr

● 그 외 주목할 만한 전시회

할랄산업엑스포코리아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슬람권을 소개하는 국내 유일의 할랄 전문 전시회.

info. 8.17(목)~19(토), 서울 코엑스(COEX)
www.halalkoreaexpo.co.kr

제2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관광뿐 아니라 문화, 의료, 뷰티, 식품 등 국내 관광 콘텐츠를 알린다.

info. 8.24(목)~27(일), 일산 킨텍스(KINTEX)
www.ktourismshow.com

세텍메가쇼 2017

가구, 인테리어, 뷰티 관련 제품, 우수 특산물 등을 전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쇼.

info. 8.24(목)~27(일), 서울 학여울역 SETEC, www.megashow.co.kr

2017 강원그린박람회

강원도의 그린 산업을 진단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박람회. 바이오, 조경, 청정에너지 분야 등 강원도 그린 산업의 현재를 한눈에 알 수 있다.

info. 8.29(화)~31(목), 춘천 봄내체육관, www.gwgreen.net



다시 시작하는 8월

8월(August)이 로마제국의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Augustus)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로마는 제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화정 체제의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에 성공하면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해졌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널리 끼치는 나라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8은 천지창조에 걸린 7일이 지난 후 새로 맞이하는 첫 숫자이기도 하고,
중국에서 인기 높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재물이나 운이 꽃핀다는 '발(發)'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2017년 상반기는 어땠나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8월,
새 출발이 희망과 행운으로 가득 찰 겁니다.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등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의견을 보내실 때는 ①이름 ②회사명 ③주소 ④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는 방법

문자메시지 010-3446-8801 이메일 **ibkceoreport@ibk.co.kr** 카카오톡 아이디 **CEOREPORT**

카카오톡 '친구찾기' 탭에서 ID로 CEOREPORT를 검색하면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와 친구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보내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는 IBK경제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research.ibk.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IBK개인형퇴직연금

공무원, 군인, 교직원도 + 개인사업자 사장님도 + 퇴직연금 미가입 직장인도

"이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 ('17.7.26일부터)

"연말정산 대비와 퇴직금 수령을 한 번에!"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거래 영업점 및 IBK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7-1999호 (2017.06.09) FP057 게시기한 : 2018.05.17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 합니다. · 개별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않습니다. 윤리경영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IBK동반자금융

56th ANNIVERSARY

1 중소기업금융

잘하는 것부터 혁신한다!

: IBK의 첫번째 혁신 **[동반자금융]**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지켜온 IBK기업은행이
더 능동적이고 더 창의적인 **[동반자금융]**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겠습니다

01 성장금융
Scale-up 금융 플랫폼
창업기업의 생존을 넘어
성공을 지원하는 성장금융

02 재도약금융
Level-up 금융 플랫폼
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재도약금융

03 선순환금융
Cycle-up 금융 플랫폼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입을
지원하는 선순환금융

당신을 이롭게 금융을 혁신하다
Innovation Bank of Korea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